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508

2008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고등학교 미술 감상 영역에 관한 연구

- 교과서의 분석과 미술수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은 미

고등학교 미술 감상 영역에 관한 연구

- 교과서의 분석과 미술수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t appreciation education
at high school

- focused on analysis of textbooks and current status of art class -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은 미

고등학교 미술 감상 영역에 관한 연구

- 교과서의 분석과 미술수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송 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미술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은 미

박은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송 식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v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미술 감상 교육 ····· 7
1. 감상의 개념 ····· 7
2. 감상 교육의 필요성 ····· 9
3. 감상 교육의 내용 ····· 10
4. 감상 교육의 방법 ····· 12
제2절.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의 비교 ····· 14

제 3 장. 연구과제 ····· 22
제1절. 제 7차 교육과정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 22
1. 교과서의 배경 ····· 22
2. 교과서 단원 내용 체계 분석 ····· 24
3. 감상 영역의 도판 분류 ····· 33
가. 감상 참고작품의 표현영역별 도판 분류 ····· 33
나. 감상 참고작품의 도판 수록 나라 분류 ····· 34
다. 감상 참고작품의 시대별 · 형식별 도판분류 ····· 36
4.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 결과 ····· 55
제2절. 현행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 ····· 59
1. 설문지 구성과 분석 방법 ····· 59

2. 설문지 분석 ····· 59
3.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 73

제 4 장. 결 론 ····· 76

【참고문헌】 ····· 79

【부록】 ····· 82

표 목 차

<표 1>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의 분류 ····· 4
<표 2> 설문지 회수 현황 ····· 5
<표 3>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 비교 ····· 15
<표 4>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교 ····· 18
<표 5> 각 교과서의 영역별 비율 ····· 24
<표 6-1> 교학사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25
<표 6-2> 교학연구사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25
<표 6-3> 금성출판사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27
<표 6-4> 대한교과서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28
<표 6-5> 두산의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29
<표 6-6> 삶과꿈의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29
<표 6-7> 시공사의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31
<표 6-8> 천재교육의 감상 단원의 내용 구성 ····· 32
<표 7> 표현 영역별 도판 분류 ····· 33
<표 8> 참고 도판 수록 나라 분류 ····· 35
<표 9> 교학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37
<표 10> 교학연구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39
<표 11> 금성출판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42
<표 12> 대한교과서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44
<표 13> 두산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46
<표 14> 삶과꿈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48
<표 15> 시공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50
<표 16> 천재교육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 52
<표 17> 감상 영역에서 학생 참고도판의 유무 ····· 55

<표 18> 설문지 문항 구성 ····· 59
<표 19>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수업의 비중 ····· 60
<표 20> 교과서의 활용도 ····· 60
<표 21> 감상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 ····· 61
<표 22> 감상 작품의 소개 비중 ····· 62
<표 23> 서양미술사의 작품 소개에 대한 시대별 비중 ····· 62
<표 24> 한국미술사의 작품 소개에 대한 시대별 비중 ····· 63
<표 25> 작품 소개 시 작가와 작품 선정 방법 ····· 64
<표 26>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와 작품 ····· 64
<표 27>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선택 분포 ····· 66
<표 28> 감상 수업의 참고 자료 ····· 67
<표 29>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 도판 중 개선되어야 할 점 ····· 67
<표 30> 지역미술을 활용한 감상 수업 지도 방법 ····· 69
<표 31> 학생작품 감상 지도 방법 ····· 69
<표 32> 미술 수업의 장소 ····· 70
<표 33> 미술 작품 전시 공간과 부속 시설 유무 ····· 70
<표 34> 미술 감상 수업 시 활용하는 교구 비치 현황 ····· 71
<표 35> 감상 수업 시 학생들의 흥미도 ····· 72
<표 36> 감상 수업을 흥미 있어 하지 않는 이유 ····· 72

국문초록

미술 교과의 목표는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능력을 기르고, 미술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조화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미술 감상 교육은 미적 안목을 육성하고, 정서를 함양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교육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감상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2007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감상의 대상을 미술작품 뿐만이 아니라 시각문화 환경으로 확장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방향과 연계하여 '실재 교육 현장에서의 미술 감상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재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침서인 현행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고, 미술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 감상수업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과정과 교육현장과의 괴리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감상 영역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표현활동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과서의 체제는 학교 수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구성으로 인하여 활용의 효율성이 낮았다. 학교 현장의 미술 감상 교육은 기자재의 여건과 주 당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학습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과 영역과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정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술 감상 교육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 교과 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첫째, 교과서의 체제가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될 교과서의 체제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제수업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감상영역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감상 할 수 있도록 편중된 구성을 지양해야 하며, 미술사 영역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시각문화 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영역은 환경, 문화, 생명가치, 영상중심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첫째, 교육현장의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감상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청각 기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미술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정의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교과서의 체제와 더불어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어도 미술 감상 교육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교육적 연구가 이루어져 미술 감상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art appreciation education at high school

- focused on analysis of textbooks and current status of art class -

Eun-Mi Park
Advisor : Prof. Song-Sig Jo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e art is to nurture aesthetic sensibility, creative and critical ability and attitude to enjoy artistic culture. For the purpose, balanced education in aesthetic experiences, expression, and appreciation is needed.

In particular, art appreciation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nurturing aesthetic and emotional senses. The changed recognition on importance of appreciation education can be identified through expanded area of appreciation in curriculum. The curriculum revised in 2007 expands objects of appreciation to environment of visual culture as well as artistic works and intends to train active ability to appreciate. In conjunction with such direction of curriculum, a necessity to analyse " how art appreciation education is going on" has been presented.

Therefore, study analyses prevailing art textbooks as a guide of curriculum, and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art appreciation class, targeting present art teachers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the curriculum and actual educ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as follows: The 7th Curriculum deals with better appreciation than the 6th, but it still focuses on expressive activities. The use efficiency of textbooks is less significant as they do not consider class at school. Art appreciation at schools is very superficial because of poor conditions of teaching tools and lack of appropriate class hour.

To overcome such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some improvement plans in aspects of textbook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 conjunction with revised curriculum:

1. Improvement Plan on Textbooks

First, the system of textbooks should be 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class units. The system of the textbooks to be revised should be applicable for actual conditions considering efficiency so that they may be understood in actual class.

Second, the area of appreciation in textbooks should be balanced in gender, races, nationalities, regionality, history and styles. And art history should be easily explained to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m.

Third, the revised curriculum is emphasizing expansion of recognition on visual culture. Therefore, the area of textbooks should reflect transforming current trend of environment, culture, life value, image-orienting information society.

2. Improvement Plan in Educational Environment

First, physical environment on education field should be improved, and enough audio-visual equipment should be secured for dynamic appreciation education.

Second, art teachers should have maintain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attitude.

Third, recognition on art appreciation should be chang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curriculum revision, if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the system of textbooks is not improved, problems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will be revealed though a new curriculum is appli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new curriculum through active acceptance of the limits revealed in the 7th Curriculum and more educational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as a base on which art appreciation education is improved in qual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 교육은 거시적으로는 인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최대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는 세분화 하면 미술교육과 미술교과교육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미술교육은 일반적인 의미로써 모든 미술에 관한 교육이며, 미술교과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하나의 교과로서 지도되는 교육을 의미한다.[1] 그 중에서도 미술 교과 교육은 그 목적이 소수의 미술가를 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참다운 인격을 형성하고, 조화로운 정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미술 교과에서는 전인적(全人的)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적체험, 표현, 감상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교육되어야 한다.

특히, 미술 감상 교육은 미술 작품이나 조형품 등의 감상 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미술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화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게 한다. 또한, 감상활동은 표현활동의 동기 유발이며, 작품이나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을 높임으로써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2]

최근 미술교육의 동향은 이러한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제작 활동 중심의 표현 활동 뿐만 아니라 미술의 이해와 감상적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학자나 미술 교육가들 역시 미술 감상 학습에 대한 실제 지도 방법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이러한 경향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감상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

---

1) 이규선 외,『미술교육학개론』,(서울: 교육과학사, 1995), p.8.

2) 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고시 15호, (서울: 대한교과서, 2001), p.29.

3) 이와 같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 노부자, “미술감상과 교육” 『조형교육』제 13집, 한국조형교육학회,1997.
· 박휘락, “감상 교재의 분석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 방책: 현행 미술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제 10집,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1997.
· 이은적, “미술비평과 감상교육,”『미술교육연구논총』제 12집,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01.등.

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미술 교육은 제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점차 감상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목표와 지도 내용을 조절해 왔으며, 특히 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도 내용을 표현과 감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감상 시간을 두어 지도 하도록 하고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된 감상의 영역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의 개념을 제작으로만 생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표현활동과 감상 활동이 미적 체험으로 자리 잡기 위한 틀로써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감상 영역을 확대하였다.[4] 2007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 또한 미적체험, 표현 영역과 더불어 감상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상의 대상을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시각 문화 환경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감상의 방법으로 성, 인종, 민족, 시대, 지역 등의 비교 감상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은 감상 교육으로 인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문제까지 포함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5]

이렇듯 감상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미술 교육 실태는 감상영역 보다는 표현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미술 교사들은 감상 활동을 돕는 기자재와 수업 시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교과 목표에 따른 올바른 감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 목표의 체계에 따른 교육 자료인 미술 교과서 활용의 효율성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감상 교과 단원의 구성 체제와, 참고 도판의 구성, 미술사, 학습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과서 체제의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이 재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교과 과정상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의 미술 감상 수업 실태를 조사하여, 교과과정과 교육 현장과의 괴리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미술 감상 수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07년 2월 교육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의

---

4) 김보영, "미술 감상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2.

5) 본 논문의 제 2장 2절,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의 비교' 참조.

6) 본 논문의 제 3장 2절, '현행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 조사' 참조.

적용 시기에 앞서 그에 따른 교육 내용 또한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의 분석은 현행 교과서의 체제와 구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의 방향을 모색 하는 데 시사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행 '제 7차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과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 시기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0학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미술 과목을 택하지 않는 이상 정규 교과과정으로서는 미술 교육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미술교육을 바탕으로 고등 사고능력에 맞게 미술 작품을 비평하고 수준 높게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그에 맞는 효과적인 미술 감상 지도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 과제에 따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7차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

2007년 2월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 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에 따른 교과서의 체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2006년 8월 고시된 수학, 영어 교육과정의 경우 2008년도에 교과서 검정을 거쳐 2009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학년 급별로, 과목별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된다. 교육부의 고시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의 경우 2011년도에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7] 새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7) 2007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09.3.: 초1,2 , 2010.3: 초3.4/중1 , 2011.3: 초 5,6/중1/고1 , 2012.3:중3/고3 , 2013.3: 고3.

지만, 교과서의 개발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행 교과서의 체제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실태조사와 맞물려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 7차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에 대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을 합격한 총 8종의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1 >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 분류

출 판 사	저 자 명	비고
(주)교학사	노영자, 이인숙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7.26
교학연구사	김정희, 정연희, 서형신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11.22
(주)금성출판사	한운성, 김용식, 송희성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7.26
대한교과서(주)	이현표, 박병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7.26
(주)두산	고승혜, 이완숙, 장선화, 고승근, 류제순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11.22
삶과꿈	이윤구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7.26
시공사	홍선표, 오인석, 조익환, 강재희, 양민영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11.22
(주)천재교육	홍명섭, 도지성, 조미연	교육인적자원부검정 2001.7.26

둘째, 교과서의 분석에 따른 내용으로는 감상 단원의 구성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구성 체제에 따른 감상 활동과 학습활동을 교과과정의 목표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교과서의 참고도판을 표현영역, 나라별, 동 · 서양별, 시대별· ·형식별로 분류하

여 각 출판사별로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2.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는 지역적인 한계를 두어 광주광역시에 분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제한하였다.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는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등의 방법 중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의 응답 반응을 얻었다. 이에 대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할의 총 61개의 공 · 사립 고등학교 중,[8] 49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미술 교사로 선정 하였다. 행정 구역 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다섯 개의 구에 소속된 각각의 고등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13부(26.5%)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지 회수 현황

비고	광주광역시 일반계 고교		Frequence
	설문지 배포현황	설문지 회수현황	
동구	6	3	50.0(%)
서구	6	2	33.3(%)
남구	14	3	21.4(%)
북구	14	2	14.2(%)
광산구	9	3	33.3(%)
Total	49	13	26.5(%)

둘째,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7년 12월17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이며, 설문조사의 방법은 우편조사, E-mail 설문조사로 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8) 2007년 12월,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준.

셋째, 설문지의 구성은 자유반응형, 선택형 형식의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문항의 내용은 감상수업의 비중, 감상 수업의 내용, 교과서의 활용과 참고자료의 이용, 감상 수업의 지도 방법, 감상 수업의 기자재 현황과 활용도, 감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9)]

넷째, 설문지의 분석은 백분율과 경향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분석에 있어 교육과정의 개정안이 공고되었지만 확증 할 만한 교과의 체제가 계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분석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대상은 지역의 미술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 통계의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광주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의 교사나 전문계열 교사들을 포함한 연구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 점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과 모형의 제시나 현장 교육에 응용한 사례 등은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앞서 미술 감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사례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9) 본 논문의 부록 참조.

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분석과 미술 수업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미술 감상 교육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제에 앞서 학자들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 1절에서는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감상의 개념, 감상 교육의 필요성, 감상교육의 내용, 감상 교육의 방법 등을 알아보고, 제 2절에서는 현행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성격, 목표, 감상 영역의 지도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미술 감상 교육

1. 감상의 개념

감상은 향수(享受, enjoyment) 라고도 하고 또 감득(感得, appreciation) 이라고도 한다. 향수는 미술작품을 보는 것과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감득은 예술작품의 진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맛본다는 의미가 있다.[10)]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감상은 「잘 생각하는 것, 가치, 기쁨, 대상의 질이나 값어치를 가늠하는 것, 바르게 평가하는 것, 온전하게 또는 예민하게 느끼는 것…」 등의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감상한다'는 감상 행동의 성격에 있어서 인식적인 성격과 감성적인 성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말하자면 미적 대상을 감상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미적 가치를 감성적으로 느끼고 또 지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감상은 작품이나 조형물, 환경의 미적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조형품이나 자연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와 관련하여 감상은 미와 깊은 관계에 있다.

---

10) 김삼랑, 『 미술교육개론』(서울: 미진사, 2000), p.329.

11) 김춘일, 『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사, 1985), p.289.

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감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철학이나 미학 등에서 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수천년 동안 탐구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중이다. 분명한 것은 미를 아름다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미는 아름다움, 좋음, 즐거움, 재미 등의 통합 개념이며 좌뇌와 우뇌가 함께 공감하는 조화와 질서, 통일 속의 변화 등의 조형 원리의 지향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한편으로 감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미가 「대상」에 내재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냐, 미가 「주관」에 있어서 감정이나 정서 등에 따라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감상은 영향을 받는다. 즉 미적 가치를 대상의 성격으로 보느냐, 주체의 성격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12]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상이 없는 주체만으로도, 또는 주체가 없는 대상만으로도 감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 의해 감상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감상하는 사람과 미적 대상과의 만남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오스본(Osborn)은 감상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13]

- 대상에 대한 주의 집중
- 현실적인 필요의식, 이해타산을 떠난 관심의 상태
- 자아몰입의 순간
- 상징적인 이해와 이미지 갖기
- 감정, 형태, 기능, 표현적 의미를 감지하는 것

이렇듯 대상과 주체 중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주체이며, 이 주체는 미적 대상을 감상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미적 대상이

---

12) 이러한 정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 블라디슬로프 타타르 키비츠,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미학에세이』, (서울: 이론과실천,1994).

13) 김재복, 『미술과의 수업과 평가』, (서울: 일지사, 1990), p. 12, 이규선 외, 『미술 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5), p. 306에서 재인용.

주위에 흔하게 널려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감상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자신이 직접 그런 미적 대상을 창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바람직한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상은 대상의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의 과정이며, 미적 대상과 주체의 만남에서 주체가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14]

2. 감상 교육의 필요성

미술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정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미술 작품에는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증오, 희망, 절망, 운명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이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기도 하고, 시각화된 진리를 볼 수 있게도 해주며, 정신을 고양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인류의 절대가치인 진, 선, 미, 성을 감각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술을 포함한 예술의 위대한 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예술의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통해 절대가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의 올바른 이해와 감상은 인류의 궁극적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15]

이처럼 미술품의 감상이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때, 감상 지도는 학생들에게 미적 대상과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며, 학생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감상지도를 통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가하는 능력을 육성하며 환경과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창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미술교육의 목적 중 조형능력과 창의성과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 미적안목 육성과 관계한다.[16] 감상지도를 통한 미적 감성의 계발은 미적 체험으로서 인간 발견 내

---

14) 이규선 외, 전게서.

15) 박동수, “미술감상의 특징과 지도 방법”, 『미술교육논총』제 3집,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6), pp.361-362.

16) 박지영, “고등학교 미술 감상수업 연구: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5.

지는 이상적인 생활 형성에로 이어지는 것이다.[17]

사춘기를 전후한 학생들은 자기표현 능력에 관한 자각이 발달하여 묘사능력과 비판능력이 발달한다. 가드너(H.Gardender) 또한 사춘기의 학생들은 다양한 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미묘한 표현적인 성격을 자각하게 된다고 말한다.[18] 그리고 비판적 인식과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높아져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비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미술 감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사고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상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듯 미술 감상 교육은 작품 감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장차 미술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술을 가까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 감상을 통한 시각적 경험과 훈련은 주위의 미술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19]

3. 감상 교육의 내용

미술 감상 교육은 미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술작품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감상이라는 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득하는 활동이다. 미술 감상 수업 시 감상물에 대하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우수한 감수성과 순수하고 예리한 감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지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즉,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있어야만 미술 감상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발휘 되는 것이다. 미술 감상 수업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작가의 안목을 배우는 동시에 아름다운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의 '창

17) 박동수, 전게서, p.362.

18) Viktor Lowenfeld & W. Lambert Brittain, 『Creative And Mental Growth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옮김, (서울:미진사:2002),p.312, 김보영, 전게서,p.10.에서 재인용.

19) 김보영, 전게서, pp.10-12.

의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창작하여 표현하는 작가의 미적 안목과 조형 능력, 창의성을 말한다.[20]

브라우디(H.S.Broudy)는 미술을 감상할 때 다음 네 가지를 감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1]

· 작품 속에 담겨있는 감각적 생동감 -작품의 감각적 특성
· 작품의 미적 구성이나 선, 색, 명암 등의 형태 - 미적 구성 형식
·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법 - 표현 방법의 특성
·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애커먼(J.Ackerman)은 그림에 나타나는 감정, 기법, 형태, 의미 등을 감상의 내용으로 삼고 이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이스너(E.W.Eisner)는 감상의 내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22]

· 재료를 다루는 기법적인 면
· 형태를 아름답게, 또는 쓸모있게 하는 미적 구성력
·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현하는 창의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 감상의 내용은 감상의 대상이 조형품과 자연 및 환경 감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적 영역인 태도의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상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감상 태도를 길러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보는 일에 참여하는 태도를

---

20) 김혜정, “고등학교 미술 감상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미술사 비교 감상 수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p.9-10.

21) 김춘일, 전게서, p.294.에서 재인용.

22) 상게서, pp.294-295.에서 재인용.

기르도록 해야 하며, 좀 더 진지한 태도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23]

4. 감상 교육의 방법

감상 지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감상지도는 이해지도나 표현지도와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다.

- 감상을 주로 하고 이해를 곁들인 수업
- 감상을 주로 하고 표현을 곁들인 수업
- 감상을 주로 하고 이해와 표현을 곁들인 수업
- 이해를 주로 하고 감상을 곁들인 수업
- 이해를 주로 하고 감상과 표현을 곁들인 수업
- 표현을 주로 하고 감상을 곁들인 수업
- 표현을 주로 하고 감상과 이해를 곁들인 수업

이런 많은 유형의 감상 수업 형태는 지도 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조건, 환경적 조건, 교사의 조건 등 제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어야 한다.[24]

감상 방법을 관점이나 주제 등으로 분류하면 감상 대상의 수에 따라 한 작품만 감상하는 단독 감상과 둘 이상 여러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감상이 있으며, 감상 활동의 형태에 따라 토론법, 관찰법, 모의미술관법, 제작법, 문예법, 작가나 작품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론법

토론법은 미술작품을 감상한 후 작품에 대한 토론을 해 가면서 자기와 친구들의 작품 속에서 표현 특징을 살펴보고, 조형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이다. 서로

---

23) 김보영, 전게서, pp.13-14.

24) 이규선 외, 전게서, P.318.

의 상이한 점과 장점을 명료화 하는 방법을 통해 유연한 감상 안목과 비평 정신을 육성할 수가 있다. 지도 내용이나 감상의 주제에 따라 일제감상법, 분단감상법, 대담법으로 전개할 수가 있다.

(2) 관찰법

관찰법은 학생들에게 조형 요소 및 구성 원리, 조형 언어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형태, 방법상의 특징을 지니는 미술품에 다양하게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다. 작품 관찰법은 분석법, 분류법, 비교법의 세 가지 활동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3) 모의 미술관법

모의 미술관법은 미술 대상에 대한 다 감각적이고 비언어적인 반응의 감상법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품과 접하고 반응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이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달력, 컬러잡지, 컬러 신문 등에 실린 미술 도판을 직접 학생들의 손으로 다루고 감상하는 능동적 활동이다. 전시법, 경매법 등으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4) 제작법

제작법은 표현 학습의 유형에 속하는 적극적 감상이다. 회화, 판화, 서예 및 입체 작품의 도판을 보고, 그대로 모사하거나 특징이 되는 부분을 소재로 하여 제작해 보는 감상방법이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개성을 살펴보고, 모사하거나 그 특징을 옮겨 보는 가운데 작가의 작품 제작과정에 공감할 수 있으며, 제작에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제작법은 평면작품과 입체작품으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다.

(5) 문예법

문예법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이 작품을 보

고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를 평론이나 감상문 등의 발표를 통해서 이해하게 하는 감상 방법이며, 글 쓰는 작업을 통해서 다른 교과와의 관련학습에도 유익이 되는 방법이다.[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기 장단점이 있어 교사는 감상의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상이 교사 중심의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이 주체가 되고 향수자가 되면서 스스로 미적 체험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 교육의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다.[26]

제2절.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의 비교

위와 같이 학자들은 미술 감상과 미술 감상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교육적 방법론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내에서는 '미술 감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2007년 2월 교육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부터 각급 학년별,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한계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27]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 하고 있는가는 관심사로 대두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의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 현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한 개념 이해와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과 새롭

---

25) 김춘일, 전게서, P.302-306.

26)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서울: 학지사, 2006), P.257.

27) 이와 같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성도 외,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의 탐색," 『조형교육』 제 23호, 2004.
- 이수경, "제 7차 중등미술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연구』,제 5권 제 2호, 한국교원대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2.
- 함수곤, " 제 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원대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2. 등.

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성격을 비교하고 미술 감상 영역의 체제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격

현행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초· 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 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8]

제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교육과정 또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29] 동일하게 미술의 영역을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수준에서 미술과의 교육과정 개정안과 현 교육과정의 성격을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 비교[30]

	성 격
7차 교육과정	①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②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③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28)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 (서울: 대한교과서,2007), p.iii.

29) _____,『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79호 (2007), p. 12.

30) _____, (2001), 전게서,p.19 : 상게서,p.2.

개정 교육과정	①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②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 의지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의 표현 요소와 표현 계획, 수행, 반성 등의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게 한다. ③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한다.

* 위의 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해설서와, 2007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임

첫째 항은 미술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명한 것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대상의 인식에서 미적 대상의 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사회적 영역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항은 미술에서의 표현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명한 것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표현활동에 있어 계획, 수행, 반성 등의 표현 과정과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항은 미술에서의 감상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명한 것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감상에서 그 영역을 미술 작품의 감상 뿐만이 아니라 시각문화 환경으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시각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다.

2. 목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 6차와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괄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하며 미술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미적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 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술교육의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31] 개정된 교육과정에

31)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광주:한솔사, 2008), p.200.

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과의 총괄 목표를 제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 표
7차 교육과정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개정 교육과정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능력을 기르고, 미술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미술의 다양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미적체험, 표현, 감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또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감수성, 좀 더 넓게는 미적 감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까지 미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던 창의성과 표현 능력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표현 능력'으로 합쳐 제시함으로써 표현 능력에서의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강조하였다. 표현 능력은 심동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능력으로 제시한 목표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지적이고 심동적인 측면을 동시에 요구하는 비평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능력으로서 심미적 태도를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술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로 구체화 하여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표현 능력과 비평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미술문화를 향수할 줄 아는 인간을 기르는 것을 총괄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목표는 학교 급별 구분 없이 총괄 목표로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취하여야 할 목표로 한 가지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급별로 목표가 차별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의 총괄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초등학교에서는 학년 군별,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의 수준을 차별화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둘째, 표현활동의 탐색, 확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판단하고 미술 문화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미술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벗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미술의 문화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상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표현하고 감상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적 체험에서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미술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현에서는 표현활동에 대한 자유롭고 유연한 태도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도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상에서는 미술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동시대의 미술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

3. 감상 영역의 내용 및 감상지도

제 7차 교육과정과 개정된 교육과정 중, 감상 내용과 감상 영역 지도에 관한 항목을 비교 하면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영역 비교[33]

구분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감상 내용	(가)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가)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고

32) 상게서, pp.200-204.

33) 교육인적자원부, (2001), 전게서,p.35,46 : 전게서 , (2007) , pp.11-14.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다. ①감상 관점을 선정하고 활용한다. ②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감상한다. ①시대와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기 ②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에 관하여 토론하기 ③비평의 형식을 알고 비평문 쓰기
	(나)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①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②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관하여 이해한다.	(나) 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①전통 미술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찾아 보기 ②전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감상 영역 지도	①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②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④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⑤'미적체험' 및 '표현'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⑥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하도록 한다.	①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작품,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②다양한 감상 관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안목을 갖게 한다. ③작품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④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문 쓰기, 발표 및 토론 등에 활용한다. ⑤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⑥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⑦'미적체험' 및 '표현'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⑧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감상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 위의 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해설서와, 2007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임

위의 표에 따르면 개정된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감상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감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가 있다.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영역은 미술 비평과 미술사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술품 감상'이 미술 비평에 해당하며, '미술문화 유산'의 이해는 미술사의 영역에 해당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미술작품'과 '미술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7차 교육과정의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이 '미술작품'으로 통합되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감상을 통한 비평능력과, 그로 인한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가) '미술작품' 에서는 미술작품, 미술가, 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미술을 개념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감상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 토론하기· 비평문 쓰기 등으로 확장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미술 문화' 에서는 미술을 체험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보다 발전된 관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통 미술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 지역 문화의 계승으로 나아가도록 문화의 창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감상 지도 영역을 살펴보면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미술품을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의 감상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단독감상과 비교감상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술 작품을 문화적 성, 인종, 민족, 지역별로 비교 감상하도록 하여 문화적인 편견을 지양하고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개정된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현행 제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술과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 미술교과의 학문적 특성,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의 영

향을 받는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 내용의 결정 요인들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국가 교육의 방향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교육 내용의 구성 또한 이러한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34]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 현행 교육 현장에서의 미술 감상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현행 교과서의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4) 교육과학기술부, 전게서, p. 205.

제3장. 연구과제

본 장에서는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의 분석과 미술 수업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감상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감상 교육 현황을 조명하고자 함이며, 이는 또한 교육 현장과의 연계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 1 절 에서는 제 7차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 단원의 체계 및, 참고 도판을 표현영역별, 나라별, 시대별· 형식별로 분류하여 체제의 구성을 살펴본다. 제 2 절 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미술 감상 수업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제 7차 교육과정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

1. 교과서의 배경

(1) 교과용 도서의 개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의하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교재'라고 되어 있다. 즉, 교과용 도서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와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학습 능력에 맞도록, 지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성한 것이다. 교과서는 현장에서의 교수· 학습 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 통제하므로 바람직한 형태의 교과서의 개발은 보다 나은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과제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민 기본 교육 내용을 제시하

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교과서는 제공된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그 전개 방법에서도 문제 해결 및 교수· 학습의 일반적인 절차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교과서의 기능이 교과의 내용, 학습자료, 학습활동, 방법 및 절차, 교수 절차의 일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주어진 체제를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선택적인 하위 활동을 가급적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35]

(2) 교과용 도서의 검정 체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을 받아 만들어지는 검정교과서, 학교장이 추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승인하는 인증도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는 검정제로 총 8종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검정에 통과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놓고 교사,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그 중 한 종류를 채택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 검정을 공고하고, 저작자가 신청을 한 후 교과서를 집필하여 저작가와 계약한 발행사가 집필을 마친 심사본 교과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전문가 집단의 심의 기구에서 검토· 심의하는 절차를 걸쳐 최종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편찬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일반계 교육 현장에서는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36] 이러한 교과서의 내적 영역 체계 중 감상 영역을 각 출판사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5) 이윤정, “미술 비평 교육 신장 방안을 위한 미술 교과서 분석: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22

36) 정세희, “고등학교 미술수업에 있어서 교과서의 기능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4-15.

2. 교과서 단원 내용 체계 분석

제 7차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영역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세 영역의 비율을 각 교과서별로 분석을 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각 교과서의 영역별 비율 (숫자 : 쪽 분량, 괄호( ): 비율 %)

	교학사	교학 연구사	금성 출판사	대한 교과서	두산	삶과꿈	시공사	천재교육	평균
미적 체험	8 (10.0)	6 (7.5)	6 (8.0)	6 (8.0)	6 (8.0)	10 (14.0)	24 (32.0)	10 (14.0)	10 (13.0)
표현	48 (61.5)	48 (61.5)	44 (62.0)	52 (68.0)	48 (63.0)	36 (50.0)	30 (40.0)	38 (53.0)	43 (57.0)
감상	13 (17.0)	20 (26.0)	14 (20.0)	15 (20.0)	12 (16.0)	23 (32.0)	17 (23.0)	21 (29.0)	17 (23.0)
기타	9 (11.5)	4 (5.0)	7 (10.0)	3 (4.0)	10 (13.0)	3 (4.0)	4 (5.0)	3 (4.0)	5 (7.0)
계	78 (100.0)	78 (100.0)	71 (100.0)	76 (100.0)	76 (100.0)	72 (100.0)	75 (100.0)	72 (100.0)	75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표현' 영역이 평균 4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영역에서 57.0%의 비율로 매우 편중된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감상' 영역은 평균적으로 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영역에서 2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타 교과서와 비교하여 <시공사>에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각 영역에서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간의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총 8종의 미술 교과서는 평균적으로 1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단원의 분량이 주당 1시간 수업으로 학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인 여건 상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상 단원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학사

‘교학사’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교학사’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감상	**1. 미술품감상** 미술전시도 사이버공간에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품의 미적가치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한다.
	2. 미술 문화 유산 이해 · 우리나라미술 · 동양미술 · 서양미술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위의 표에 따르면 <교학사>의 감상 영역은 대단원을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원 미술품 감상, 2단원 미술 문화 유산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미술품 감상에서는 작품 감상의 개념과 감상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작품감상의 관점을 질문을 통해 제시하고, 주제와 표현 특징에 대한 학습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소주제인 ‘미술 전시도 사이버 공간에서’ 는 인터넷을 활용한 감상 방법과 국내외의 미술관· 박물관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미술작품 보고서의 양식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2단원 미술 문화 유산 이해는 미술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우리나라 미술, 동양미술, 서양 미술을 문화적,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는 목표 아래 미술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미술사 연표와 함께 하고 있으나 개별 참고작품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2) 교학연구사

‘교학연구사’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2>과 같다.

<표 6-2> ‘교학연구사’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시간 공간 그리고 미술	1. 새로운 모색 · 회화와 조소의 만남 · 테크놀로지와의 만남 · 대지와의 만남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이해한다.
	2. 미술과 문화 · 미술감상 ·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 동양 미술의 변천 · 서양 미술의 변천	미술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한다.

위의 표에 따르면 <교학연구사>의 감상 영역은 대단원을 시간, 공간, 그리고 미술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원 새로운 모색, 2단원 미술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새로운 모색에서는 다른 출판사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다는 지도목표 아래 회화와 조소의 만남, 테크놀로지와의 만남, 대지와의 만남으로 작품을 구분하여 국내· 외의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2단원의 미술과 문화에서 소주제인 '미술 감상' 에서는 미술작품감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미술관 관람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있다. 학습활동으로 미술관이나 사이버 미술관 관람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상의 관점으로 펠드먼의 비평의 4단계인 서술-분석-해석-판단의 방법을 질문의 방법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 에서는 미술관련 직업의 세계를 여러 분야에서 소개함으로써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을 엿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동양미술의 변천, 서양미술의 변천은 미술사 영역으로 시대별로 흐름에 맞게 미술사 연표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고 있다.

(3)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3>과 같다.

<표 6-3> '금성출판사'의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작품과의 만남	1. 미술과 시대 정신	시대에 따라서 미술가들의 정신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2. 미술 문화의 유산	
	· 영혼을 위한 미술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 까지 미술과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 격동기의 미술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적인 격동기의 미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시의 미술이 미술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한다.
	· 미술과 과학	·르네상스 이래 과학이 미술에 기친 영향에 대하여 이해한다.
	· 미술을 위한 미술	·20세기 추상미술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미술사 연표	

위의 표에 따르면 <금성출판사>의 감상 영역은 대단원을 작품과의 만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원 미술과 시대정신, 2단원 미술문화의 유산, 3단원 미술사 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미술과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서 미술가들의 정신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외 작가들의 참고작품을 제시하며 시대적 배경과 작품에 내용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고 있다. 2단원 미술문화 유산 이해는 타 출판사와 같이 미술사 영역을 시대별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주제로 영혼을 위한 미술, 격동기의 미술, 미술과 과학미술을 위한 미술로 구분하여 단원의 제목에 맞게 참고작품을 구성하여 비교하며 감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활동으로 토론하기, 조사하기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단원 미술사 연표에서는 미술사 연표를 중심으로 동· 서양의 미술작품을 상· 하로 나누어 시대별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지면과 내용구성을 미술사 영역에 치중

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미술 감상 영역에서 학생 작품의 감상이나 미술품의 표현 특징에 관한 해석 및 분석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점을 갖는다.

(4) 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4>과 같다.

<표 6-4> '대한교과서'의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감상	1.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2. 미술 문화 유산 이해 ·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 미술과 종교 · 우리 나라 미술 · 다른 나라 미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3. 인터넷을 활용한 작품 감상	

위의 표에 따르면 <대한교과서>의 감상 영역은 대단원을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원 미술품 감상, 2단원 미술 문화 유산 이해, 3단원 인터넷을 활용한 작품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미술품 감상에서는 감상의 단계 4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단계에 따른 질문을 통해 작품 감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감상 보고서의 예를 들고 있다. 2단원 미술 문화 유산 이해는 미술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목표 아래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미술과 종교의 주제로 비교하며 감상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미술, 다른 나라 미술에서는 시대별· 양식별로 참고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3단원 인터넷을 활용한 작품감상에서는 국· 내외의 미술관과 박물관 사이트를 소개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감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5) 두산

‘두산’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5>과 같다.

<표 6-5> ‘두산’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감상	작품을 감상하여 작품의 미적가치를 판단하고,다양한 미술 문화의 변천과 표현특징을 구별한다.	
	1. 작품 감상	미술품의 감상 방법을 이해하여 작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2. 미술 문화의 이해 · 동양미술 · 서양미술 · 우리나라 미술	미술품을 감상하여 작품의 시대적.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양식적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위의 표에 따르면 <두산교과서>의 감상 영역은 1단원 작품감상, 2단원 미술문화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작품 감상에서는 미술 감상에 대한 의의와 작품 감상 시 미적 안목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비평의 4 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참고작품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과 함께 학습활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있다. 2단원 미술문화유산이해는 한국· 동· 서양의 미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금성출판사와 같이 연대표를 중심으로 각 시대별로 동· 서 미술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6) 삶과꿈

‘삶과꿈’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6>과 같다.

<표 6-6> ‘삶과꿈’의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감상	미술품을 감상하여 지역과 시대 및 양식별 특징을 이해하고,문화재의 소중함을 안다.	
	1. 우리 작품 감상하기 · 체험과 주제 · 표현양식과 방법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체험과 표현의도·방법 등을 비교하여 안다.
	2. 우리 나라 미술의 흐름 알기 · 선사~통일신라시대 · 고려·조선시대 전기 · 조선시대후기~근·현대	우리 나라 미술품의 흐름을 알아, 전통미를 느끼고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견한다.
	3. 동양 미술의 관계 알기 · 중국 · 인도 · 일본, 동남아시아	동양의 미술품을 감상하며 조형미를 느끼고, 우리 나라 미술 양식과 관련성을 발견한다.
	4. 서양 미술의 양식 이해 · 선사~로마 제국 시대 · 비잔틴~르네상스시대 · 바로크~근대 · 현대 · 전후 미술의 다양성	서양 미술의 흐름을 알아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을 안다.

위의 표에 따르면 <삶과꿈>의 감상 영역은 대단원을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원 우리 작품 감상 하기, 2단원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알기, 3단원 동양 미술의 관계 알기, 4단원 서양 미술의 양식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우리작품 감상하기는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체험과 표현 의도·와 방법 등을 비교하여 안다는 목표 아래 학생 참고작품을 제시하여 각 참고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적 가치의 판단에서는 유적지 탐사나 미술품 감상, 친구작품 감상, 영상자료 검색을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고, 학생이 작성한 감상보고서가 예로 자세하게 나와 있다. 2,3,4 단원은 미술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시대별로 참고작품과 배경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7) 시공사

‘시공사’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7>과 같다.

<표 6-7> ‘시공사’의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읽는그림 보는그림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그린 작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아본다.	
	1. 절개와 충정의 표현	작가의 마음을 특정한 대상에 비유한 작품을 감상하고 그 조형미를 분석해 본다.
	2. 그림 속의 이야기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그린 작품을 감사하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아본다.
	3. 민화읽기	민화 속에 그려진 소재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소재와 기법으로 표현해 본다.
알고 보는 미술품	1. 알고 보고 느끼기	다양한 감상 관점으로 미술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2. 미술 문화 유산 바로 보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한다.

위의 표에 따르면 <시공사>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고 각 단원에서 통합된 형태를 취한다. 그 중 감상 영역으로 독립된 단원은 1단원 읽는 그림 보는 그림, 2단원 알고 보는 미술품의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읽는 그림 보는 그림에서는 미술품 분석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미술품을 감상해본다는 목표 아래 학습활동의 질문을 통하여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절개와 충정의 표현, 그림 속의 이야기, 민화 읽기 에서는 단원 제재에 맞게 구성된 참고작품 속에 깃들어진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단원 알고 보는 미술품에서는 미술품의 미적가치를 판단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소주제인 알고 보고 느끼기에서는 다양한 감상관점의 질문을 유도하고 있고, 미술 문화 유산 바로보기에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문화유산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대.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8) 천재교육

‘천재교육’의 감상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6-8>과 같다.

<표 6-8> ‘천재교육’의 감상 단원 내용 구성

출판사	영 역	단 원	지도 목표
천재교육	감상의 세계	**1. 감상의 세계** · 감상의 주체 · 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을 통해 다양한 미적 가치를 이해한다. 미술 문화의 변모를 지역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안목과 문화적 비전을 키운다.
		2. 미술의 발자취 · 우리나라 · 동양 · 서양	·우리나라 미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문화적 특질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의 미술 문화는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를 느낀다. ·우리의 환경과 가까운 나라들의 미술 문화 풍토를 이해하여 새로운 미적 감성의 확대와 전망을 가늠한다. ·서양 미술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미술 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어떻게 감응할 수 있는가를 느끼고 탐구한다.

의의 표에 따르면 <천재교육>의 감상 영역은 대단원을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원 감상의 세계, 2단원 미술의 발자취로 구성되어 있다. 1단원 감상의 세계에서는 학생참고작품을 예로제시하며 학습활동을 통해 감상을 돕고 있으며, 2단원 미술의 발자취는 미술사 영역으로 우리나라, 동양, 서양의 미술사를 시대별로 참고작품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참고도판의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3. 감상 영역의 도판분류

미술 교과서의 참고도판은 학생들의 감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참고도판의 구성을 표현 영역별, 나라별, 시대별· 양식별로 분류하여 각 출판사별로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상 참고 작품의 표현 영역별 도판 분류

감상 참고작품을 표현 영역별로 크게 구분하면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건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다음 <표 7>은 각 출판사별로 표현 영역에 따른 도판 수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표현 영역별 도판 분류

도판분류 / 출판사	구분	도판					계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건축	기타	
교학사	국내	9	4	4	3	0	20
	동양	6	2	1	1	0	11
	서양	19	5	0	3	2	29
교학연구사	국내	15	4	5	5	0	29
	동양	4	3	2	1	0	10
	서양	31	9	1	3	3	47
금성출판사	국내	16	7	9	2	3	37
	동양	4	5	2	1	0	12
	서양	39	11	2	2	2	56
대한교과서	국내	29	4	1	4	1	39
	동양	1	1	0	0	0	2
	서양	26	10	0	1	2	39
두산	국내	20	5	3	1	1	30
	동양	0	3	0	0	1	4
	서양	27	8	0	4	3	42
삶과꿈	국내	21	11	13	6	1	52

	동양	10	11	3	14	9	47
	서양	40	18	4	13	3	78
시공사	국내	22	13	5	2	2	44
	동양	0	0	0	0	0	
	서양	8	7	0	1	3	19
천재교육	국내	31	7	18	12	2	70
	동양	7	2	2	3	2	16
	서양	54	15	1	10	5	85
총계 (frequency)		439 (53.7)	165 (20.2)	76 (9.3)	92 (11.3)	45 (5.5)	817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8개의 출판사 모두 국내, 동양, 서양의 미술 작품 중 회화 영역이 53.7%의 비율로 가장 많은 수의 도판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조각이 20.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영역으로 분류된 도판을 제외하면 디자인· 공예 도판이 9.3%의 비율로 가장 적은 점유율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양미술의 경우 디자인· 공예는 <삶과 꿈>, <금성출판사>,<천재교육>,<교학연구사>에서 평균 2점 정도로 수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판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동양의 참고작품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출판사도 있다. 특정 영역에 편중된 구성은 여러 표현 방식의 작품을 타 문화권과 비교하여 감상 하는 데에 제한점을 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표현 방식으로 참고도판을 구성해야 균형 잡힌 감상. 비평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 감상 참고 작품의 참고 도판 수록 나라 분류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서 참고작품이 수록된 나라는 교과서에 기재된 참고도판의 출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동양의 도판 수록 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히바, 페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로 분류하였다.

둘째, 서양의 도판 수록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이집트, 독일,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플랑드르, 스웨덴, 이란, 터키로 분

류하였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대 유물이나, 교과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명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참고 도판이 수록된 나라를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 표 8 > 참고도판 수록 나라 분류

나라 \ 출판사		교학사	교학 연구사	금성 출판사	대한 교과서	두산	삶과꿈	시공사	천재 교육	계 (%)
국내		20	29	37	39	30	52	44	70	321 (39.2)
동양	중국	6	6	7	2	2	27	0	8	58 (7.0)
	인도	5	2	0	0	2	11	0	4	24 (2.9)
	일본	0	2	1	0	0	5	0	4	12 (1.5)
	아프가니스탄	0	0	1	0	0	1	0	0	2 (0.2)
	캄보디아	0	0	1	0	0	1	0	0	2 (0.2)
	히바	0	0	1	0	0	0	0	0	1 (0.1)
	페르시아	0	0	1	0	0	0	0	0	1 (0.1)
	미얀마	0	0	0	0	0	1	0	0	1 (0.1)
	인도네시아	0	0	0	0	0	1	0	0	1 (0.1)
	계	11	10	12	2	4	47	0	16	102 (12.5)
서양	프랑스	8	16	15	16	17	20	6	22	120 (14.7)
	이탈리아	4	6	10	3	5	20	3	23	74 (9.0)
	미국	6	4	6	5	5	5	2	4	37 (4.5)
	에스파냐	1	2	5	1	2	5	0	6	22 (2.7)
	네덜란드	1	2	6	2	3	3	3	3	23 (2.8)
	영국	2	3	3	1	0	2	1	3	15 (1.8)
	그리스	1	0	3	1	1	4	1	3	14 (1.7)
	이집트	1	2	1	0	1	4	1	3	13 (1.6)
	독일	0	2	0	0	1	3	0	4	10 (1.2)
	러시아	1	1	2	1	2	1	1	0	9 (1.1)
	스위스	0	1	1	2	2	1	0	1	8 (1.0)
	오스트리아	1	0	2	1	0	1	0	1	6 (0.7)
	플랑드르	1	1	0	0	0	1	0	2	5 (0.6)
	스웨덴	0	2	0	1	0	0	0	0	3 (0.4)
	이란	0	0	0	0	0	0	0	3	3 (0.4)
	터키	0	1	0	0	0	1	0	1	3 (0.4)
	기타	2	4	2	5	3	9	1	6	32 (3.9)
	계	29	47	56	39	42	78	19	85	395 (48.3)
총 계		60	86	105	80	76	177	63	171	818(100.0)

위의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참고작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39.2%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천재교육이 70점으로 가장 많은 도판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동양의 경우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국, 인도, 일본 순으로 작품이 많이 구성 되어 있었으며, <삶과 꿈> 과 <금성출판사>에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히바, 페르시아의 나라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참고작품을 전혀 수록하지 않은 출판사도 있어서 균형 있는 도판의 수록이 요구된다. 서양의 경우 출판사별로 통계를 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순으로 도판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미술사의 작품 소개 시 르네상스나 바로크에 프랑스, 이탈리아, 플랑드르, 네덜란드의 회화 작품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서양 작품의 비중은 위의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미국 도판의 경우 20세기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시점에서 주로 수록되고 있었다. 감상 영역 전체에서 <삶과 꿈> 출판사가 우리나라, 동, 서양 모두 총 177점으로 가장 많은 참고도판을 수록하고 있고, 시공사의 경우 63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도판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 감상 참고 작품의 시대별· 형식별 도판 분류

감상 참고작품은 크게 분류하면 국내, 동양, 서양의 작품으로 분류 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양, 서양의 시대별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국내의 시대별 구분은 크게 선사시대(70만년전~기원전), 삼국시대(기원전 57~935), 통일신라(668~1392), 고려시대(918~1392), 조선시대(1392~1897), 근대(1897~1945), 현대(1945~현재) 로 구분하였다.

둘째, 동양의 나라 분류는 도판 구성의 빈도가 높은 중국, 인도, 일본으로 구별을 하였고, 도판 수록 빈도 수가 적은 그 이외의 나라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중국의 시대별 구분은 선사시대(B.C.5000-1500), 은·주(B.C.1000-300) , 춘추전국시대(B.C.770-403), 진· 한(B.C. 221～ 206 ～ AD 220) , 위·진·남북조북조:(336-～581) ,남조:(317-～589), 수·당(581-618-906), 송·원(960~1368), 명·청(1368~1900), 근-현대(1900~ 현재)로 구분하였다.

인도의 시대별 구분은 고대 인더스 문명(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

(B.C.317-180), 슝가왕조(B.C.185-78), 쿠샨왕조(B.C.78-A.D.226, 굽타왕조(380-606), 팔라왕조(750-1288), 무굴왕조(1451-1526), 근-현대(1526~현재)로 구분하였다.

일본의 시대별 구분은 아스카 시대(552-645), 나라 시대(710-794), 헤이안 시대(794-1185),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무로마치 시대(1333-1573), 모모야마 시대(1573-1615), 에도 시대(1603-1867), 근-현대(1867~현재)로 구분하였다.

셋째, 서양의 시대별 구분은 선사-고대(기원전 ~7세기), 중세(8 ~ 13세기), 르네상스 이후(14 ~ 17세기), 신고전주의 이후(18 ~ 19세기), 인상주의 이후(1900 ~ 1945), 추상표현주의 이후(1945~현재)로 구분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영역별로 이와 같은 시대별 구분을 적용하여 각 출판사별로 도판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학사

교학사 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교학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기원전)	(기원전57~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현재)	
·빗살무늬토기(신석기) ·잔무늬거울(청동기)	·오회분4호묘의 천장 및 받침돌(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 여래입상(고구려) ·산수도깨비무늬벽돌(백제)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석굴암본존불상	·부석사무량수전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무늬정병	·강희안 ·분청사기철화물고기무늬병 ·함윤덕(16C) ·신사임당 ·김홍도 ·강희언	·민복진(1927~) ·이중섭(1950)	·김환기(1958) ·이상범(1960)	

	·천마도(신라)						
2 (10)	5 (25)	1 (5)	2 (10)	6 (30)	2 (10)	2 (10)	20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주(周)	(B.C.1000-300)	갑골문자(은),	1 (16.6)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B.C. 221~ 206 ~ AD 220)	말과마부의토용(진),고개지(동진)	2 (33.3)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수(隋)· 당(唐)	(581-618-906)	삼채부인기상(당)	1 (16.6)
	송(宋)·원(元)	(960~1368)		
	명(明)·청(靑)	(1368~1900)	동기창(명),조지겸(1865)	2 (33.3)
	근-현대	(1900~ 현재)		
계				6 (1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난순주의원형장식	1 (20.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보살입상	1 (20.0)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궁정도	1 (20.0)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	1 (20.0)
	근-현대	(1526~현재)	낙타싸움(1610)	1 (20.0)
계				5 (100.0)

3)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알타미라동굴벽화(구석기) ·빌렌도르프의비너스(구석기) ·새사냥 (B..C1400) ·여인형상의기둥 (B.C.420) ·콜로세움	샤르트르대성당	·Botticelli.S (1478) ·Michelangelo.B (1509) ·Rubens.P (1622)	·Ingres.J(1814) ·Delacroix.E (1826) ·Millet.J(1864) ·Monet.C(1876) ·Gogh.V(1889)	·Boccioni.U (1913) ·Chagall.M (1915) ·Utrillo.M (1923) ·Matisse.H (1939)	·Dubuflet.J (1901-1985) ·Long.R(1945~) ·Leger.F(1954) ·de Kooning.W (1956) ·Segal.G(1964) ·Estes.R(1972) ·Judd.D(1978)	

·테오도라의 초장(6C)					·Lichtenstein.R (1972) ·Starling.J (1977-1983) ·Francis.S(1982)	
6 (20.6)	1 (3.4)	3 (10.3)	5 (17.2)	4 (13.7)	10 (34.4)	29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비교적 각 시대에 걸쳐서 고르게 참고 도판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도판의 비중이 25%와 30%로 많고, 현대 작가의 작품 소개가 부족하다. 이에 비해서 서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상 표현주의 이후의 도판이 34.4%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양은 중국과 인도의 회화, 공예, 조각, 건축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와 서양의 도판에 비하여 포괄적인 구성을 보이며 단지 간략하게 구색을 맞춘 정도로 보인다.

(2) 교학연구사

교학연구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0> 과 같다.

<표 10 > 교학연구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기원전)	(기원전57~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현재)	
·빗살무늬토기(신석기) ·반구대암각화(청동기)	·사신도(고구려) ·천마도(신라) ·기마인물형토기(신라) ·산수귀문전(백제)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굵은고리귀걸이(신라)	·십일면관음보살상 ·감은사지3층석탑	·수월관음도 ·청동은입사수금문정병 ·경천사지10층석탑	·김 시 ·강세황 ·안견(1447) ·변상벽(17C) ·수원화성팔달문(1796) ·청룡사대웅전기둥(18C)	·윤효중 ·이상범(1930) ·김기창(1953) ·이중섭(1953) ·박내현(1952) ·김환기(1962) ·박수근(1962)	장욱진(1986)	

	·가야금동관(가야)			·화각4층장 (19C)			
2 (6.8)	7 (24.1)	2 (6.8)	3 (10.3)	7 (24.1)	7 (24.1)	1 (6.8)	29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주(周)	(B.C.1000-300)	술잔(은)	1(16.6)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B.C. 221~ 206 ~ AD 220)	병마용갱(진),솥(한),젊은부인(한)	3(50.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수(隋)· 당(唐)	(581-618-906)		
	송(宋)·원(元)	(960~1368)	곽희(11C초)	1(16.6)
	명(明)·청(靑)	(1368~1642)	팔대산인(1694)	1(16.6)
	근-현대	(1642~ 현재)		
계				6(10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반가사유상	1(50.0)
	나라 시대	(710-794)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에도 시대	(1603-1867)	카쓰시카 호쿠사이(1760-1849)	1(50.0)
	근-현대	(1867~현재)		
계				2(10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아르다나리슈바라	1(50.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1632-1653)	1(50.0)
	근-현대	(1526~현재)		
계				2(100.0)

(3).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로셀의 비너스(구석기) ·라스코동굴벽화 ·석판에그린그림(청동기) ·수변의수렴(B.C.1500) ·그리스의 도기(B.C.5세기초) ·콜로세움 ·투트메스(B.C.1400) ·쿠르스묘상(B.C.530-520) ·테아노묘비(B.C.375) ·아우구스투스상 ·인물조각기둥(1145-1155)	·풍랑에시달리는배 ·이콘 ·솔즈버리대성당 ·피사대성당의세례당과종탑 ·Giotto(1303-06) ·Van Eyck(1434) ·Raffaello.S(1510-11)	·Caravaggoo(1596-1602) ·Claesz.P(1623) ·Velazquez.D(1657) ·Watteau.J(1718) ·David.J(1784)	·Rodin.F(1880-1917) ·Gericault(1819) ·Turner.J(1844) ·Daumier.H(1858-60) ·Courbet.G(1854) ·Millet.J(1857) ·Gogh.V(1889) ·Monet.C(1890) ·Cezanne.P(1890) ·Gauguin.E(1891) ·Signac.P(1893)	·Picasso(1907) ·Werfkin.M(1910) ·Matisse.H(1911) ·Tanguy.Y(1942)	·리히텐슈타인 ·Pollock.J(1948) ·Tinguely.J(1959) ·Rothk.M(1956) ·Oldenberg.C(1962) ·Hockney.D(1967) ·Beuys.J(1970) ·Estes.R(1972) ·Nauman.B(1983)	
11 (23.4)	7 (14.8)	5 (10.6)	11 (23.4)	4 (8.5)	9 (19.1)	47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국내는 24.1%의 비율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근대의 도판이 가장 많고, 근-현대의 작품은 윤효중의 조각 작품을 제외하면 모두 회화 도판으로 편중된 구성을 보인다. 서양은 선사-고대 시대 때 인물 조각상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벽화와 조각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비교적 회화 위주의 도판이 소개되고 있고, 신고전주의 이후를 소개한 도판이 23.4%의 비율로 가장 많다. 동양은 중국의 작품을 비교적 시대별로 소개하고 있고, 인도와 일본도판을 간략하게 구성하고 있다.

(3)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1> 과 같다.

< 표11 > 금성출판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 ~ 기원전)	(기원전57~935)	(668 ~1392)	(918~1392)	(1392~1897)	(1897 ~1945)	(1945~현재)	
·빗살무늬토기(신석기) ·부여송국리출토품(청동기)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신라) ·우현리대묘청룡도(고구려) ·금관(신라) ·금제관식(백제) ·기마인물형토기(신라) ·인왕상(신라)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마두각배(가야)		·팔만대장경(11C초)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앙부일구 ·경복궁경회루 ·백자상감모란문병 ·4층사방탁자 ·정선(1734) ·신윤복	·고희동(1915) ·김환기(1938)	·이쾌대(1948) ·박래현(1956) ·김종영(1957) ·김종영(1958) ·이중섭(1958) ·변관식(1959) ·권진규(1967) ·이승조(1968) ·임직순(1970) ·김환기(1970) ·유영국(1980) ·최의순(1981) ·김세중(1984) ·최진욱(1992) ·백남준(1993) 외1 ·김호득(1997)	
2 (5.4)	8 (21.6)	0	2 (5.4)	6 (16.2)	2 (5.4)	17 (45.9)	37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주(周)	(B.C.1500-300)		
	진秦·한漢	(B.C.770-403)		
	춘추전국시대	(B.C. 221~ 206 ~ AD 220)		
	위魏·진晋 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도철유정문방정, 무인상, 원강석굴	3 (42.8)
	수· 당唐	(581-618-906)	오우도, 한황	2 (28.5)
	송宋·원元	(960~1368)	지등도	1 (14.2)
	명明·청靑	(1368~1642)	화훼도(청)	1 (14.2)
	근-현대	(1642~ 현재)		
계				7 (10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나라 시대	(710-794)		
	헤이안시대	(794-1185)		
	가마쿠라시대	(1185-1333)		
	무로마치시대	(1333-1573)		
	모모야마시대	(1573-1615)		
	에도시대	(1603-1867)	호쿠사이(1831)	1 (100.0)
	근-현대	(1867~현재)		

계				1 (100)
기타	페르시아		날개달린황소(B.C 522-486)	1 (25.0)
	아프가니스탄		부다의 얼굴(4-5세기)	1 (25.0)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안면탑 (12세기)	1 (25.0)
	히바		메드레세 (16세기)	1 (25.0
계				4 (100.0)

(3).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스톤헨지 ·라스코동굴벽화 ·원추형항아리 ·파르테논신전(B.C 450) ·람세스Ⅱ세 (B.C.550-400) ·네페르티티왕비 (B.C.14세기) ·아폴로(B.C.350) ·흑색항아리 (B.C.540) ·무희(B.C.50) ·콜로세움 (A.D70-81)	·수태고지 (12C) ·지오토 (1304)	·아비뇽의피에타 ·도나텔로(1415) ·브루넬레스키 (1420) ·얀반아이크(1434) ·프라안젤리코 (1440) ·Leonardo davinci (1510-11)외 1 ·미켈란젤로(1534) ·엘그레코(1580) ·Velazquez.D (1650) ·베르메르(1660) ·렘브란트(1665) ·Hobbema.M (1689) ·David.J(1793)	·Goya.F(1814) ·Delacroix.E (1830) ·들라크루아 (1835) ·Cousbet.G (1849) ·모네(1872) ·세잔(1879) ·Seurat.G (1887) ·고흐(1890) ·고갱(1891) ·로댕(1898)	·피카소(1907) ·칸딘스키 (1910-11) ·들로네(1912) ·Duchamp.M (1917) ·몬드리안 (1920) ·마티스(1932) ·무히 라 (1937) ·달리(1937) ·Picasso.P (1937) ·무어(1938) ·Johns.J(1958)	·자코메티 (1947) ·Matisse.H (1953) ·Bacon.F(1953) ·루이스(1961) ·Smith.D(1964) ·워홀(1967) ·클로즈 (1975-76) ·시걸(1977) ·바자렐리 (1978) ·크리스토 (1975-85)	
10 (17.8)	2 (3.5)	13 (23.2)	10 (17.8)	11 (19.6)	10 (17.8)	56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국내는 주로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에 공예작품이 많다. 통일신라 시대의 도판은 없으며, 1945년 이후에서 현대에 이르는 작가의 도판이 45.9%로 가장 많은 구성을 보인다. 서양의 경우는 비교적 시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역시 회화 위주의 작품 소개가 많다. 동양의 도판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공예, 조각, 건축 작품에서 명· 청대에 이르는 회화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 일본의 에도시대 회화와, 그 외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히바의 조각· 건축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4) 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2> 와 같다.

< 표 12 > 대한교과서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기원전)	(기원전57~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현재)	
		불국사	채색화(1350)	·미인도 ·안견(1447) ·쌍계사대웅전 ·신사임당(1504-1551) ·강희안(1417-1464) ·황집중(1533-?) ·조속(1595-1668) ·김명국(1600-?) ·원각사지10층석탑 ·분청사기(15C) ·종묘(1395) ·김홍도(1745-?) ·정선(1676-1759) ·책거리 ·강세황(1713-1791) ·변상벽(17C) ·이재초상(18C) ·장승업(1843-1897) ·김정희(1786-1897) ·홍세섭(1832-1884)	·이중섭 ·김경승 ·김은호(1929) ·고희동(1915) ·오지호(1939) ·윤효중(1940)	·박수근(1950) ·김환기(1962) ·김기창(1963) ·변관식(1969) ·박내현(1973) ·백윤기(1994) ·김유선(1999) ·박생광(1977) ·이응로(1979) ·이상범(1960) ·남 관(1984)	
0	0	1 (2.5)	1 (2.5)	20 (51.2)	5 (12.8))	12 (30.7)	39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주(周)	(B.C.1000-30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B.C. 221~ 206		

		~ AD 22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원강석굴	1 (50.0)
	수(隋)· 당(唐)	(581-618-906)		
	송(宋)·원(元)	(960~1368)	곽희(1072)	1 (50.0)
	명(明)·청(靑)	(1368~1900)		
	근-현대	(1900~ 현재)		
계				2 (100.0)

(3) 서양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구석기) ·밀로의비너스 (B.C.2세기)	·목판화(1280) ·샤르트르성당 북쪽현관의조각 작품(1194) ·스테인드글라스(13C) ·밀라도대성당 (15C)	Hobbema .M(1689)	·Ingres.J(1808) ·Delacroix.F (1830) ·Renoir.P(1892) ·Courbet.G(1854) ·Millet.J(1857) ·Manet.E(1866) ·Monnet.C(1872) ·Seurat.G(1884) ·Cezanne.P(1890) ·Gogh.V(1890) ·Munch.E(1893) ·Gauguin.E(1894)	·Picasso.P(1909) ·Brancusi.C (1912) ·Duchamp.M (1917) ·Klee.P(1922) ·Kandinsky.W (1924) ·Matisse.H(1943) ·Chagall.M(1945) ·Munch.E	·Pollock.J(1948) ·Giacometti.A (1950) ·Moore.H(1957) ·Johns.J(1958) ·Fontana.L (1962) ·Stella.F(1967) ·Hanson.D(1969) ·Warhol.A(1967) ·Christo.J(1972) ·Oldengerg.C (1977) ·Vasarely.V (1985)	
2 (5.1)	5 (12.8)	1 (2.5)	12 (30.7)	8 (20.5)	11 (28.2)	39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국내는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의 참고도판이 없으며, 조선시대에 20점(51.2%)의 도판이 편중되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은 신고전주의이후(30.7%)와 추상표현주의 이후(28.2%)에 도판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고전주의의 작품은 모두 회화도판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동양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건축과 송· 원 시대의 회화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5) 두산

두산 출판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3> 과 같다.

< 표 13 > 두산출판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기원전)	(기원전57~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현재)	
울주천전리암각화(청동기)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고구려) ·천마도(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백제)	다보탑	·수월관음도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나전대모국당초문염주합	·이상좌 ·강희안(1417-1464) ·이암(1499-?) ·안견(1447) ·김득신(1754-1822) ·신윤복(1758-?) ·정선(1734) ·문방도 ·이재초상 ·분청사기철화어문병	·고희동(1915) ·변관식(1899-1976) ·김규진(1920) ·이인성(1934) ·이중섭(1953) ·김환기(1957)	·강태성(1961) ·박내현(1963) ·권진규(1967) ·남 관(1984) ·백남준(1992) ·윤영자(2001)	
1 (3.3)	3 (10)	1 (3.3)	3 (10)	10 (33.3)	6 (20)	6 (20)	30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주(周)	(B.C.1000-30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B.C. 221~ 206 ~ AD 220)	병마용(진)	1 (50.0)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원강석굴의불상	1 (50.0)
	수(隋)· 당(唐)	(581-618-906)		
	송(宋)·원(元)	(960~1368)		
	명(明)·청(靑)	(1368~1900)		
	근-현대	(1900~ 현재)		
계				2 (1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설법하는불타상(2-3세기)	1 (50.0)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나타리자(10세기)	1 (50.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근-현대	(1526~현재)		
계				2 (100.0)

(3)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라스코동굴벽화(구석기) ·파라오흉상 ·사모트라케의니케(B.C.190) ·콜로세움 ·요나를삼킨물고기	·모자이크(504-526) ·프레스코화(834) ·피사대성당과 탑 ·노트르담대성당 ·샤르트르대성당-장미창	·Rembrandt.H ·Chardin.J ·Ingres.J ·Michelangelo.B(1501) ·Leonardo da Vinci(1503) ·Raffaello.S(1507)	·Daumier ·Signac.P ·Delacroix.E(1830) ·Millet.J(1857) ·Rodin.F(1881) ·Monet.C(1886) ·Gogh.V(1889)	·Utrillo.M ·matisse.H ·Gaudi.A(1900-14) ·Kandinskij.V(1909) ·Braque.G(1913) ·Maeke.A(1913) ·Rouault.G(1937) ·picasso.p(1937)	·Tingully.J ·Cornell.J(1941) ·de kooning. Willem(1950-52) ·Giacometti.A(1960) ·Chagall.M(1967) ·Le Witt.S(1968) ·Hanson.D(1969) ·Maria.W(1977) ·Francis.S(1977-78) ·Lichtenstein.R(1978) ·Close.C(1997)	
5 (11.9)	5 (11.9)	6 (14.2)	7 (16.6)	8 (19.0)	11 (26.1)	42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국내는 조선시대의 회화 작품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서양은 추상표현주의 이후(26.1%)의 작품이 가장 많다. 동양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건축과, 인도는 굽타왕조의 건축과 팔라왕조의 조각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6) 삶과꿈

삶과꿈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4> 와 같다.

< 표 14 > 삶과 꿈의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기원전)	(기원전57~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현재)	
·빗살무늬토기(신석기) ·잔무늬거울(청동기) ·암각화(신석기) ·붉은간토기항아리	·장군총(고구려) ·백호도(고구려) ·금동대향로(백제) ·쇼토쿠태자상(백제) ·마애삼존불(백제) ·산수무늬벽돌(백제) ·금관 ·천마도(신라) ·서수모양토기(신라) ·반가사유상(고구려) 외1점 ·미륵사지석탑(백제) ·굽은토기항아리(신라)	·성덕대왕신종 ·석굴암돔과 본존불상 ·군위석굴 ·감은사지3층석탑 ·	·부석사무량수전 ·철조석가여래좌상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무늬정병 ·어제비장전 변상 ·나전대모국당초무늬염주합 ·기마도강도 ·양류관음도 ·월정사팔각9층석탑 청자상감 모란국화무늬과형 병	·안견(1447) ·강희안 ·이정 ·장승업(1843-1854) ·정선(1751) ·2층농 ·수원성곽 ·계산포무도(1825-1854) ·법주사 팔상전 ·분청사기 철화물고기무늬병 ·백자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나혜석 ·임용련 ·안중식(1913) ·고희동(1915) ·김복진(1925) ·성공회대성당(1926-96) ·윤효중(1940) ·이중섭(1954)	·권진규 ·김종영(1958) ·허건(1976) ·권순형(1999)	
4 (7.6)	13 (25.0)	4 (7.6)	8 (15.3)	11 (15.3)	8 (15.3)	4 (7.6)	52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채도항아리	1 (3.7)
	은(殷).주(周)	(B.C.1000-300)	청동 굉(주),갑골문(은),금문(서주)	3 (11.1)
	춘추전국시대	(B.C.770-403)	무사용,석고문	2 (7.4)
	진(秦)·한(漢)	(B.C. 221~ 206 ~ AD 220)	기사렵록류금구식, 만리장성(진~명), 예서(한)	3 (11.1)
	위(魏)·진(晋)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관음보살입상, 고개지, 반가사유상, 행서(동진)원강석굴 제 20동굴, 룽먼석굴	6 (22.2)
	수(隋)· 당(唐)	(581-618-906)	왕유(당), 이소도(당), 대안탑(당), 해서(당), 초서(당)	5 (18.5)
	송(宋)·원(元)	(960~1368)	곽희(북송), 황공망(원)	2 (7.4)
	명(明)·청(靑)	(1368~1642)	동기창(명),청화서과무늬주전자(명) 모유금문위각방형찰합(청),천단기년전	4 (14.8)
	근-현대	(1642~ 현재)	장다첸(1889-1983)	1 (3.7)
계				27 (1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호류사 5층목탑	1 (20.0)

	나라 시대	(710-794)	백제관음상,반가사유상	2 (40.0)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조수희화 회권	1 (20.0)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구마모토성	1 (20.0)
	에도 시대	(1603-1867)		
	근-현대	(1867~현재)		
계				5 (10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아잔타 석굴	1 (9.0)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미술	(B.C.317-180)	아소카왕 석주, 스투파	2 (18.1)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의 간다라미술	(B.C.78-A.D.226)	불타입상(2C), 보살좌상(2C), 반가사유상	3 (27.2)
	굽타 왕조의 아잔타미술	(380-606)	초전법륜좌상(5C), 연꽃을쥔보살도	2 (18.1)
	팔라 왕조의 회교미술	(750-1288)	시바상	1 (9.0)
	무굴 왕조의 회교미술	(1451-1526)	타지마할묘당	1 (9.0)
	근-현대	(1526~현재)	라지프트화(1780)	1 (9.0)
계				11 (100)
기타	캄보디아		앙코르 톰(1200)	1 (25.0)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	1 (25.0)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1 (25.0)
	아프가니스탄		바비얀 석굴	1 (25.0)
계				4 (100.0)

(3)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라스코동굴벽화(구석기) ·빌렌도르프의비너스(구석기) ·스톤헨지(신석기) ·아부심벨신전 ·칼(BC3100) ·포도나무 ·지구라트(BC.22-21) ·암각화(BC7) ·니케신전(BC421) ·흑회식항아리(BC6) ·사모트라케의니케(BC200-190) ·부부상의도관	·하기아소피아대성당 ·대회교사원 ·린다우성서표지 ·피사대성당 ·샤르트르대성당 ·피에타(1300) ·Giotto(1305) ·Brunelleschi.F(1420-34) ·전능자그리스도(1320) ·프레스코화	·Donatello(1425-30) ·Veroccio(1470) ·Botticelli.S(1485-86) ·Leonardo da vinci(1503) ·Durer.A(1503) ·Giorgione(1508) ·Raffaello.S(1513) ·Michelangelo 외 1 (1513-16) ·Bruegel.P(1566) ·El Greco(1586)	·Canova.A(1793) ·Ingres.J(1814) ·Courbet.G(1854-55) ·Delacroix.E(1861) ·Millet.J(1867-71) ·Corot.J(1830) ·Turner.J(1838) ·Manet.E ·Monet.C	·Eiffel.A(1889) ·Rodin.F(1892-97) ·Cezanne.P(1895) ·Gauguin.E(1897) ·Picasso.P(1907) ·kirchiner.E(1913) ·Modigliani.A(1918) ·Brancusi.C(1924) ·Duchamp.M(1913) ·Dali.S(1936) ·Matisse.H(1940)	·kooning.W(1953) ·Warhol.A(1962) ·Baldaccini(1962) ·Le Corbusier(1967) ·Stella.F(1968) ·Smithson.R(1970) ·퐁피두센터(1971-77) ·백남준(1971) ·Hanson.D(1985)	

(BC.550-520) ·복숭아와유리단지 (BC.5) ·수도교 (BC1-AD 1C) ·아우구스투스황제상(BC20) ·촌장상 ·코우로스 (B.C.525) ·벨베데레의 아폴론(B.C.4-1세기)	(1123) ·스테인드글라스	·Rubens.P (1625) ·Bernini(1623) ·Rembrandt (1632) ·베르샤유궁내부 (1661-90) ·등잔(1700) ·Boucher.F (1751) ·Goya(1814)	(1891) ·Signac.P (1893)	·Gabo.N (1952-59)		
18 (23.0)	11 (14.1)	18 (23.0)	10 (12.8)	12 (15.3)	9 (11.5)	78 (100.0)

위의 표에서와 같이 삶과 꿈은 출판사 중 가장 많은 수의 도판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와 서양 모두 공예, 조각, 건축, 회화의 장르가 각 시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동양은 중국, 인도, 일본 이외에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의 도판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시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7) 시공사

시공사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5> 와 같다.

< 표 15 > 시공사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기원전)	(기원전57~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현재)	
·반구대암각화 (청동기)	·태환귀걸이 (신라) ·정림사지5층석탑(백제) ·여인도 (고구려) ·서산마애삼존	·석굴암본존불	청자오리형연적 ·김우(1310)	·경복궁의경회루 ·사층사방탁자 ·경북안동하회마을의 양진당 ·분청사기조화물고기문양편병 ·신사임당	·윤효중 (1917) ·박수근 (1962) ·이중섭 ·탱화 (1920)	·이승택(1994) ·조승환(1995) ·전수천(1995) ·최인수(2000) ·최의순(1997) ·엄태정(1996) ·전 준(1997)	

	불(백제)			(1504-1551) ·정선(1676-1759) ·이경윤 (1545-1611) ·김홍도 (1745-1806) ·신윤복 (1758-1813) ·김정희(1844) ·채색화 ·십장생문양장 ·십장생도		·최기원(1968) ·김정명(1998) ·권진규(1967) ·최종태(1993) ·김종영(1958) ·김환기(1959) ·이우환(1979) ·변관식(1959) ·박래현(1956) ·이종상(1997) ·신영상(1980) ·송희성(2000)	
1 (2.2)	4 (9.0)	1 (2.2)	2 (4.5)	14 (31.8)	3 (6.8)	19 (43.1)	44 (100.0)

(2)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7세기)	(8~13세기)	(14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라스코동굴벽화 ·석회암 채색화	최후의심판	·Jan V.(1434) ·Michelangelo. B (1499) ·Michelangelo D. (1597-1599)	Auguste Rodin(1892-1898)	Piet Mondrian (1921)외 1점. ·Naum Gabo (1890-1977)	·Yves Klein(1960) ·Lucio.F(1961) ·David Smith(1964) ·Lucas S(1966) ·Danard Judd(1969) ·Jean Dubuffet(1975) ·Henry Moore(1982) ·Niki de Saint Phalle(1983)	
2 (10.5)	1 (5.2)	3 (15.7)	2 (10.5)	3 (15.7)	8 (42.1)	19 (100.0)

위의 표에서와 같이 시공사는 타 출판사에서 보여 지는 양식과 다르게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참고 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보면 국내는 비교적 시대별로 최

소한으로 작품의 소개를 하고 있다. 그 중 현대의 도판이 19점 (43.1%)로 전체 도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타 출판사는 근-현대의 도판의 구성이 거의 회화 위주 인 것에 비하여 윤효중(1917)에서 최인수(2000)에 이르기까지 10여 점의 설치·조각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서양 도판 역시 추상표현주의 이후의 조각· 설치 작품의 소개가 많다. 타 출판사와 구별되는 구성은 특징적이지만 시대별로 분류하였을 때 편중된 구성의 체제가 아쉬운 점이다.

(8) 천재교육

천재교육의 감상 영역의 참고도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 표 16> 과 같다.

<표 16 > 천재교육의 감상 영역 시대별 도판 분류

(1) 국내 ( ):%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계
(70만년전 ~기원전)	(기원전57~ 935)	(668-1392)	(918~1392)	(1392~1897)	(1897~1945)	(1945~ 현재)	
·조개껍데기얼굴,골각기,조개팔찌(신석기) ·빗살무늬토기(신석기) ·민무늬토기(청동기) ·비파형동검(청동기) ·허리띠고리(청동기) ·암각화(신석기~청동기) ·잔무늬거울(청동기) ·오리모양토기(연맹국가시대)	·장군총(고구려) ·백호도(고구려) ·주인초상(고구려) ·금동대향로(백제) ·쇼토쿠태자상(백제) ·정림사지5층석탑 (백제) ·바퀴장식토기(가야) ·분황사탑(신라) ·유리봉수병(신라) ·금관(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불국사(8세기) ·석굴암내부 (8세기) ·불국사3층석탑 ·금동불두 ·묵화무늬대접형토기 ·안압지 ·포석정 ·성덕대왕신종	·부석사조소여래좌상 ·월정사팔각9층석탑 ·부석사무량수전 ·법어,탄연 ·나전대모국당초무늬염주합 ·청자상감운학무늬매병 ·기마도강도 ·수월관음도	·숭례문 ·금박귀주머니 ·오륜행실도 ·분청사기인화무늬병 ·일월도 ·백자항아리 ·안견(1418~?) ·강희안(1419-1464) ·이정(1541~?) ·신사임당(1504-1551) ·조속(1595-1668) ·정선(1751) ·신윤복(1758~?)	·안중식(1913) ·고희동(1915) ·김복진(1925) ·황술조(1930) ·윤효중(1940) ·이중섭(1950) ·변관식(1950) ·이상범(1954) ·명동성당(1896)	·장운상 ·서세옥(1929-) ·장리석(1958) ·김환기(1961) ·김종영(1975) ·유경채(1979) ·장욱진(1987) ·이응로(1987) ·전국광(1987) ·백남준	

				·김정희 (1786-1856) ·장승업 (1843-1897)		(1990) ·김석철 (1994)	
8 (11.4)	11 (15.7)	8 (11.4)	8 (11.4)	15 (21.4)	9 (12.8)	11 (15.7)	70 (100.0)

(2) 동양 ( ):%

나라	시 대	연 대	참고 도판	계
중국	선사시대	(B.C.5000-1500)		
	은(殷).주(周)	(B.C.1500-300)	청동기(은) , 갑골문(은)	2 (25.0)
	춘추전국시대	(B.C.770-403)		
	진(秦)·한(漢)	(B.C. 221~ 206 ~ AD 220)	만리장성 (진~명시대)	1 (12.5)
	위(魏)·진(晋) 남북조(南北朝)	북조:(336-~581) 남조:(317-~589)	둔황석굴	1 (12.5)
	수· 당(唐)	(581-618-906)	강산설제도(당),당삼채항아리(당)	2 (25.0)
	송(宋)·원(元)	(960~1368)	송림정자(원)	1 (12.5)
	명(明)·청(靑)	(1368~1642)	천단기년전(청)	1 (12.5)
	근-현대	(1642~ 현재)		
계				8 (100)
일본	아스카 시대	(552-645)		
	나라 시대	(710-794)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무로마치 시대	(1333-1573)	추동산수 (1420-1506)	1 (25.0)
	모모야마 시대	(1573-1615)	오사카성천수각(1583)	1 (25.0)
	에도 시대	(1603-1867)	부악38경(1760-1849), 호반(1866-1924)	2 (50.0)
	근-현대	(1867~현재)		
계				4 (100)
인도	고대 인더스문명	(B.C.2500-1700)		
	마우리아 왕조	(B.C.317-180)		
	슝가 왕조	(B.C.185-78)		
	쿠샨 왕조	(B.C.78-A.D.226)	불타 좌상	1 (25.0)
	굽타 왕조	(380-606)	왕과 왕비(아잔타 석굴 부분)	1 (25.0)
	팔라 왕조	(750-1288)	시바상	1 (25.0)
	무굴 왕조	(1451-1526)	타지마할	1 (25.0)
	근-현대	(1526~현재)		
계				4 (100.0)

(3) 서양 ( ):%

선사~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 이후	인상주의 이후	추상표현주의 이후	계

(기원전 ~7세기)	(8 ~ 13세기)	(14 ~ 17세기)	(18 ~ 19세기)	(1900 ~ 1945)	(1945~현재)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구석기) ·동굴벽화 (구석기) ·스톤헨지 (신석기) ·투탕카멘마스크 ·부조 ·파피루스 ·소를습격하는 사자(BC5세기) ·지구라트 (BC22-21) ·프레스코 벽화 (BC17-15) ·니케신전 (BC4세기)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BC350) ·부부상의도관 (BC550-52) ·아우구스타문 (BC2세기) ·전원의조망 (BC20) ·콜로세움	·성소피아돔 (532-537) ·전능하신그리스도(1123) ·전능자그리스도 (1320) ·피사성당 (1053-1272) ·사르트르성당 (1194-1593) ·Giotto.d.B (1266-1337) ·장미창(14C) ·건축장식 (1611-37) ·세밀화(17C 초) ·타일패널(17C초)	·Masaccio. (1401-1428) ·Brunellescho.F (1420-34) ·Donatello (1425-30) ·Van Eyck.J (1434) ·Botticelli.S(1482) ·Durer.A(1498) ·Micheleangelo.B (1499) · ,Leonardo.D (1503) ·Raffaello.S (1483-1520) ·Tintoretto. (1592-94) ·Tiziano(1562) ·Bruegel.P (1566) ·Caravaggio.M (1573-1610) ·Bernini(1622) ·Rebens.p(1625) ·Rembrandt.H (1642) ·Velazquez.D (1656) ·세브르요(1760)	·David.J(1793) ·Canova.A (1805-07) ·Ingres.J(1814) ·Constable.J (1821) ·Delacroiz.E (1822) ·Corot.J (1826-45) ·Courbet (1854-55) ·Millet.J(1857) ·Daumier.H (1808-1879) ·Manet.E (1832-1883) ·Sisley.A(1873) ·Renoir.P(1876) ·Seurat.G (1883-84) ·Cezanne.P (1895-1990) ·Van Gogh.V (1888) ·Gauguin.P (1892) ·Goya.F(1903-06)	·Gaudi.A (1882) ·Manguin.H (1874-1943) ·Picasso.P (1907) ·Severini.G (1912) ·kirchiner.E (1913) ·Lipchitz.J (1914) ·Kandinsky.W (1866-1944) ·Rodin.A (1901-04) ·Bourdelle.E (1909) ·Dali.S(1929) ·Duchamp.M (1944) ·Giacometti.A (1950)	·Fautrier.J (1943) ·Hofmann.H (1943) ·Marini.M (1947) ·Hartung.H (1957) ·Rauschenge rg.R(1968) ·Merz.M (1968) ·Simithson.R (1970) ·Calder.A (1971) ·Riley.B (1974) ·Flack.A (1974)	
16 (18.8)	12 (14.1)	18 (21.1)	17 (20.0)	12 (14.1)	10 (11.7)	85 (100.0)

위의 표에 따르면 비교적 시대별로 고르게 도판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국내는 선사시대에 공예작품이 주류를 이루며, 조선시대의 도판이 가장 많고 주로 회화작품이다. 동양은 중국의 은· 주 시대의 공예작품에서 송· 원 시대의 건축 작품에 이르는 도판 소개하고 있고,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의 회화에서 에도시대의 회화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인도는 쿠샨왕조의 조각에서 무굴왕조의 건축 작품에 이르는 도판을

소개하고 있다. 서양 도판 역시 고르게 분포 하고 있으며, 선사-고대의 도판이 18.8%의 비율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다.

4.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 결과

지금까지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를 단원 내용별, 시대별, 표현 양식별 도판분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단원별로 학습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감상 영역은 '미술품 감상'과 '미술 문화 이해'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 4 참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미술품 감상' 영역보다는 '미술 문화 유산'에 대한 내용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 감상' 은 또래 학생의 작품 감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감상 영역에서 학생 참고도판은 작가 도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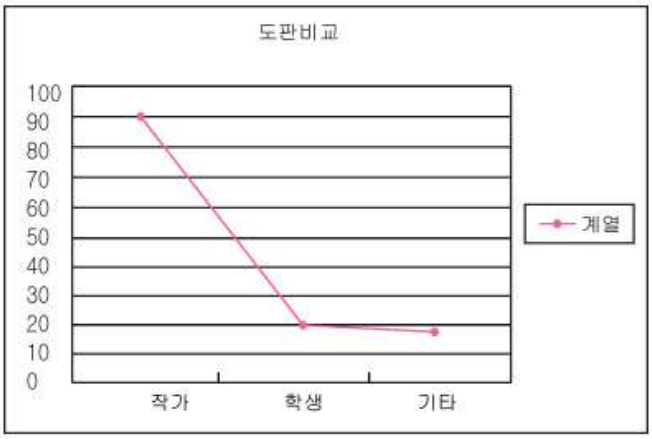
<표 17> 감상 영역에서 학생 참고도판의 유무 (○,×)

	교학사	교학 연구사	금성 출판사	대한 교과서	두산	삶과꿈	시공사	천재교육
학생도판 유무	×	×	×	×	○	○	○	○

위의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감상 영역에서 학생 참고 도판을 소개하고 있는 출판사는 4개의 출판사이다. 학생 참고 도판은 표현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감상 영역에서 따로 분류된 학생 도판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가 있다.

<차트 1> 미술교과서 전체의 작가 · 학생 도판 비교[37]

37) 이윤정, 전게서, p.46.



그러나 위의 차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교과서 전체 학생의 도판 수보다 작가의 도판이 현저하게 많은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도판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도판이 많은데,[38] 이는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감상 작품의 도판을 표현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참조> 회화 영역 위주의 도판 구성이 53.7%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인 미술 표현 방식인 회화 영역이 여전히 도판 비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 영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현대 미술 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라별 도판 구성을 살펴보면 <표 8 참조> 국내보다 서양의 도판이 9.1% 더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에스파냐, 네덜란드 도판의 점유율이 높았다. 동양미술 도판의 경우 국내미술(39.2%)이나 서양미술(48.3%)에 비하여 12.5%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동양 도판의 수록은 비교적 잘 알려진 중국, 인도, 일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금성출판사>와 <삶과 꿈>에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히바 등과 같이 인지도가 적은나라의 도판을 수록하여 다른 나라의 작품을 다양하게 개재하고자 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는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이를 이

38) 예를 들면, 두산 p.59의 「정거장」' 삶과 꿈 p.52-53의 「골목」' 「서울하늘」' 「어릴적 이야기」' 시공사 p.67의 「자소상」 등이 있다.

해하고, 비교 감상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다문화 교육의 관점과도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다.

감상 작품의 도판을 시대별로 분류 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표 9~16 참조> 국내는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도판 점유율이 27.7%와 22.4%로 많았으며, 서양의 경우 역시 신고전주의 이후와 추상표현주의 이후에 이르는 시기의 도판이 18.7%와 19.7%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미술사의 영역을 살펴보면 서양미술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감상 영역의 마지막 페이지에 현대미술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현대미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술 감상 영역에서 사이버 미술관 관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출판사는 <교학사>, <교학연구사>, <대한교과서>, <삶과 꿈>의 4개의 출판사이며, 감상관점, 비평의 관점 등이 소개되어 있는 출판사는 <교학사>, <교학연구사>, <대한교과서>, <두산>의 4개의 출판사이다. 미술 작품의 감상을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내용과 관점, 비평에 관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 논문인 박은덕(2003).의 연구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 교과서는 감상 작품이 반복적으로 실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미술 교과서는 학년 급별, 학교 급별의 감상 작품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과서의 감상 작품 혹은 현행 다른 교과서의 감상 작품이 그대로 소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한다. 예를 들면 대한교과서 (p.20)에 있는 김득신의 '파적'은 초등학교 3학년(p.6), 중학교 2학년 (삶과 꿈, p.33) 에서는 '야묘도추'(간송 미술관에서도 제목을 '야묘도추'로 명명함), 중학교 1학년(교학사, p.63), 중학교 2학년 (교학사, p.33)에서는 '파적도' 등 다른 제목으로 반복 소개되고 있어, 도판의 다양성 부재와 아울러 체계적인 내용 구성 및 고증이 미흡하다고 하였다.[39] 초등학교와 중학교 미술교과서 체제를 살펴보았지만, 위의 연구를 참고하여 보면 개정될 교과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

39) 박은덕,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체계 비교 분석," 『 조형교육 』 제 21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3), p.129.

지 위계성을 갖춘 체제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는 많은 내용을 지면에 실으려다보니, 체제와 구성면에서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정제인 고등학교 교과서는 각 출판사별로 독창적인 내용을 구성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률적인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특정 영역과 시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현행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 조사

1. 설문지의 구성과 분석 방법

위와 같이 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 미술 감상 교육을 교육과정 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육과정과의 연계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학교 현장의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통계의 대상은 지역의 미술 교육 현황을 재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분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술 교사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조사의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다음 < 표 18 >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18 >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성	문항 수	문항번호
감상 수업의 비중	2 문항	1,2
감상 수업의 내용	6 문항	3,4,5,6,7,8
교과서의 활용과 참고자료의 이용	3 문항	9,10,11
감상 수업의 지도 방법	2 문항	12,13
감상 수업의 기자재 현황과 활용	3 문항	14,15,16
감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2 문항	17,18
기타	1 문항	19
계	19 문항	

설문의 통계는 회수된 총 13부(26.5%)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백분율과 경향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2. 설문지 분석

가. 감상 수업의 비중

문항 1). 다음은 미술 교과 영역인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어느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19 >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수업의 비중

구 분	frequency (%)
미적체험	12.3
표현	67.7
감상	17.7
total	100.0

조사 결과 미술 수업에서 표현 영역이 67.7%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감상 17.7%, 미적체험 12%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의 영역별 비중과 비교 하였을 때 <표 5 참조>와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항 2). 다음은 수업 시 교과서 활용의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0 > 교과서의 활용도

구 분	frequency (%)
미적체험	17.7
표현	50.0
감상	31.5
total	100

조사 결과 표현 영역이 50% 의 교과서 활용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31%, 미적체험이 17.7%로 나타났다. 교과서 활용도의 면에서 감상 영역의 활용도가 수업의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표현 영역에서의 교과서 활용도는 수업의 비중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감상 수업 시 다른 영역에 비하여 교과서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

할 수가 있으며, 교과서 이외의 보조 자료의 활용이 적다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나. 감상 수업의 내용

문항 3). 다음은 미술 감상 수업 시 많이 다루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1> 감상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회화	8	57.1
2) 조각	1	7.1
3) 건축	0	0.0
4) 디자인	4	28.5
5) 공예	1	7.1
6) 기타	0	0.0
total	14	100.0

조사 결과 감상 수업 시 소개하는 영역으로 회화가 57.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디자인이 28.5%, 조각과 공예가 7.1%로 나타났다. 감상 수업 시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이 건축 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없었다.

교과 영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7 참조> 교과서의 구성 역시 회화 영역의 도판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교과와 수업에서 미술작품의 감상을 회화 영역으로 편중되게 소개하는 것은 미술 작품의 영역을 제한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문항 4). 다음은 감상 작품 소개 시 선생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분은 어느 영역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2> 감상 작품 소개 비중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한국미술	1	7.1
2) 동양미술	0	0.0
3) 서양미술	7	50
4) 세 영역 모두 고르게 소개하고 있다.	6	42.8
5) 기타	0	0.0
total	14	100.0

조사 결과 감상 작품의 소개의 비중은 서양미술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세 영역 모두 고르게 소개하고 있다는 의견이 42.8% 로 나타났다. 한국 미술에 대한 비중은 7.1% 로 나타났다.

교과 영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표 8 참조>, 교과서의 참고도판 역시 서양미술이 국내미술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교과서 상에서 나타나는 편차는 이처럼 심하지 않았다. 감상 수업에서 서양미술의 소개가 50%인 것은 교사들의 인식이 서양미술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동양미술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양미술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문항 5). 다음은 서양 미술사를 시대별로 분류할 때 작가와 작품 소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3> 서양미술사의 작품 소개에 대한 시대별 비중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고대(기원전 ~7세기)	0	0.0
2) 중세(8~13세기)	0	0.0
3) 르네상스 이후(4~17세기)	4	22.2
4) 신고전주의 이후(18~19세기)	1	5.5
5) 인상파 이후(1900~1945)	10	55.5
6) 추상표현주의 이후(1945~현재)	3	16.6

7) 기타	0	0.0
total	18	100.0

조사 결과 서양미술사의 작품 소개 시 인상파 이후에 대한 작품 소개를 55.5%로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르네상스 이후가 22.2%, 추상표현주의 이후가 16.5%로 소개되고 있었다. 작가와 작품 소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기로 고대와 중세로 응답한 교사는 없었다.

교과 영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9~16 참조> 교과서에 소개된 서양미술 도판은 추상표현주의 이후 → 신고전주의 이후 → 선사~고대 시대의 순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신고전주의 이후의 작품설명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상파 이후의 작품소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항 6). 다음은 한국 미술사를 시대별로 분류할 때 작가와 작품 소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4> 한국미술사의 작품 소개에 대한 시대별 비중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선사(70만년전~기원전)	0	0.0
2) 삼국시대(기원전 57~935)	0	0.0
3) 통일신라(668~918)	1	5.8
4) 고려시대(918~1392	1	5.8
5) 조선시대(1392~1897)	9	52.9
6) 근대(1897~1945)	2	11.7
7) 현대(1945~현재)	3	17.6
8) 기타	1	5.8
total	17	100.0

조사 결과 한국미술사의 작품 소개 시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기는 조선시대가 52.9%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가 16.7%, 근대가 11.7%로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5.8%로 나타났다. 작가와 작품 소개에 가장 많은 비

중을 두는 시기로 선사와 삼국시대라고 응답한 교사는 없었다.

교과 영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9~16 참조>교과서에 소개된 한국미술 도판은 조선시대 → 현대 → 근대 시기의 순서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수업의 비중은 도판 구성과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문항 7). 다음은 미술 감상 수업 시 작가와 작품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5> 작품 소개시 작가와 작품 선정 방법

분 류	N	frequency (%)
1)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토대로 선정	6	50.0
2)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조나 양식에 맞게 교사가 임의적으로 선정	6	50.0
3) 교사가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선정	0	0.0
4)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0	0.0
5) 기타	0	0.0
total	12	100.0

조사 결과 감상 작품의 소개 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토대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이 알아야 할 미술 사조나 양식에 맞게 교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다는 의견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수업의 지도서로써 교사로 하여금 교과서가 더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체제가 교사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문항 8). 다음은 교사의 입장에서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와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6>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와 작품 (복수응답)

국 내			국 외 >		
작 가 · 작 품	시 대	frequency (%)	작 가 · 작 품	시 대	frequency (%)
겸재정선 · 금강전도 · 인왕제색도	조선시대 (1676-1759)	3 (23.0)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르네상스 이후 (1452-1519)	1 (7.1)
안 견	조선시대	1 (7.6)	**들라크루아** · 민중을 이끄는 여신	신고전주의 이후 (1798-1863)	1 (7.1)
이중섭 · 소 ·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근대 (1916-1956)	2 (15.3)	**빈센트 반 고흐** · 해바라기 · 별이 빛나는 밤	신고전주의 이후 (1853-1890)	2 (14.2)
박수근 · 소녀 · 나목 · 창신동 집 · 나무와 두 여인	근대 (1914-1965)	3 (23.0)	**모네** ·해돋이·인상	인상주의 이후 (1840-1926)	1 (7.1)
김환기	근대 (1913-1974)	1 (7.6)	**피카소** · 아비뇽의처녀들 · 게르니카	인상주의 이후 (1881-1973)	4 (28.5)
오승윤	근-현대 (1939-2006)	1 (7.6)	**뒤샹** · 샘	인상주의 이후 (1887-1968)	1 (7.1)
백남준 · 비디오아트	현대 (1932-2006)	2 (15.3)	**샤갈**	추상표현주의 이후 (1887-1985)	1 (7.1)
			앤디 워홀 · 마릴린먼로	추상 표현주의 이후 (1928-1987)	2 (14.2)
			윌리엄 데 쿠닝 · 여인 시리즈	추상표현주의 이후 (1904-1997)	1 (7.1)
total		13 (100.0)	**total**		14 (100.0)

조사 결과 고등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선정한 국내 작가로는 박수근과 겸재정선이 23.0%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섭과 백남준이 15.3%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안견, 김환기, 오승윤이 각각 7.6% 로 나타났다. 시대를 살펴보면 근 - 현대 시기의 작가를 많이 선정하고 있었다.

국외 작가로는 피카소가 28.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빈센트 반 고흐와 앤디 워홀이 각각 14.2%로 선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들라크루아, 모네, 뒤샹, 샤갈, 윌리엄 데 쿠닝이 각각 7.1%로 나타났다. 시대를 살펴보면 인상주의에서 추상표현주의 이후에 이르는 시기에 속한 작가를 많이 선정하고 있었다.

교과영역의 분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교과서의 미술 감상 영역은 문화유산이해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근대 이전의 미술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앞서가는 시대의 변화와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근-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다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교과서의 활용과 참고자료의 이용

문항 9). 다음은 미술 교과서의 선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7> 현재 사용 중인 미술 교과서의 선택 분포

구 분	N	frequency (%)
1) 교학사	3	23.0
2) 교학연구사	1	7.6
3) 금성출판사	2	15.3
4) 대한교과서	3	23.0
5) 두산	0	0.0
6) 삶과꿈	0	0.0
7) 시공사	1	7.6
8) 천재교육	3	23.0
total	13	100.0

조사 결과 광주 광역시에 분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대한교과서, 천재교

육 출판사의 교과서 사용 비율이 23.0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성출판사가 15.3%, 교학연구사가 7.6% 로 사용되고 있었다. 자료 내의 결과로 볼 때 두산과, 삶과 꿈 출판사의 교과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문항 10). 다음은 감상 수업 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8> 감상 수업의 참고자료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슬라이드 또는 사진	1	6.2
2) 화집이나 전시도록에 실린 작품	3	18.8
3)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 작품	1	6.2
4) 인터넷 자료	9	56.2
5) 기타	2	12.5
total	16	100.0

조사 결과 감상 수업의 참고 자료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56..2%로 가장 많았고, 화집이나 전시 도록에 실린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18.8%, 슬라이드 또는 사진,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6.2%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12.5% 의 교사가 DVD, CD, Video Tape 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이점으로 인하여 보조 자료로써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교사들 스스로의 교구의 개발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항 11). 다음은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 소개된 도판 중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29>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 참고도판 중 개선 되어야 할 점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참고도판의 수록을 늘린다.	3	11.1
2) 특정지역이나 역사에 편중되지 않은 고른 구성	2	7.4
3) 교과서에 수록된 미술사나 도판 영역의 자세한 설명 필요함	7	25.9
4) 참고도판이 크고 명료해야 함	5	18.5
5) 전통미술에 관련한 도판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	4	14.8
6) 현대미술에 관련한 도판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	5	18.5
7) 기타	1	3.7
total	27	100.0

조사 결과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 소개 된 참고도판 중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미술사나 도판 영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는 의견이 2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참고도판의 크기가 크고 명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대미술에 관련한 도판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5%로 나타났고, 전통미술에 관련한 도판이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참고도판의 수록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1.1%이며, 특정 지역이나 역사에 편중되지 않은 고른 구성을 보여야 한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3.7%의 의견으로 참고도판에서 더 이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교과서의 분석 결과 미술 감상영역에서 미술문화유산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술사의 영역이 강조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의 구성이 일률적인 설명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미술 감상 수업은 자칫 지루하다는 인식을 학생들로부터 하게 만든다. 교사들 역시 교과서에 수록된 도판의 설명이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흥미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 감상 수업의 지도 방법

문항 12). 다음은 지역미술을 활용한 감상 수업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30> 지역미술을 활용한 감상 수업 지도 방법

분 류	N	frequency (%)
1) 화집이나 기타 매체의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품 감상을 하고 있다.	4	30.7
2) 현장견학을 통해 감상을 한 후 감상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5	38.4
3) 하지 않는다.	4	30.7
4) 기타	0	0
total	13	100.0

조사 결과 지역 미술을 활용한 감상 수업으로 현장견학을 통해 감상을 한 후 감상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7%의 교사가 화집이나 기타 매체의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상을 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지역미술 감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30.7%로 나타났다.

문항 13). 다음은 수업시간에 제작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감상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31> 학생작품 감상 지도 방법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작품 평가 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하며 토론	9	64.2
2) 우수한 작품은 교내에 전시하여 감상	5	35.7
3) 하지 않는다.	0	0.0

4) 기타	0	0.0
total	14	100.0

조사 결과 수업시간에 제작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 지도로 작품 평가 시 우수한 작품을 감상하며 토론한다는 교사가 64.2%로 가장 많았고, 우수한 작품은 교내에 전시하여 감상한다는 교사는 35.7%의 비율로 나타났다.

마. 감상 수업의 기자재 현황과 활용

문항 14). 다음은 미술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32> 미술 수업의 장소

분 류	N	frequency (%)
1) 미술실	11	84.6
2) 일반교실	2	15.3
3) 기타	0	0
total	13	100.0

조사 결과 미술수업을 미술실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6%로 나타났고, 일반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5.3%로 나타났다.

문항 15). 다음은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며 보관할 전시장과 부속시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33> 미술 작품 전시 공간과 부속 시설 유무

분 류	N	frequency (%)
1) 있다.	4	30.7
2) 없다.	9	69.2

3) 기타	0	0.0
total	13	100.0

조사 결과 학교 내에 미술 작품을 보관하고 감상하며 보관할 전시장과 부속 시설이 없다고 대답한 교사는 69.2%로 나타났고, 부속시설이 있다고 대답한 교사는 30.7%로 나타났다.

문항 16). 다음은 감상 수업 시 활용하는 교구는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34> 미술 감상 수업시 활용하는 교구 비치 현황 (복수응답)

분 류	N	frequency (%)
1) 멀티미디어 컴퓨터	10	23.2
2) VTR	9	20.9
3) 빔 프로젝트 (PC 및 비디오 호환)	3	6.9
4) 슬라이드 프로젝트	3	6.9
5) OHP	2	4.6
6) 실물화상기	6	13.9
7) 프로젝션 TV	10	23.2
8) 없음	0	0.0
9) 기타	0	0.0
total	43	100.0

조사 결과 학교에 비치된 미술 감상 교구로는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프로젝션 TV가 각각 2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VTR이 20.9%, 실물화상기가 13.9%, 빔프로젝트와 슬라이드 프로젝트가 각각 6.9%, OHP가 4.6%의 비율로 비치되어 있었다.

바. 감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문항 17). 다음은 미술 감상 수업 시 미적체험, 표현 영역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35> 감상 수업 시 학생들의 흥미도

분 류	N	frequency (%)
1) 매우 흥미 있어 한다.	0	0.0
2) 흥미있어한다.	5	38.4
3) 보통이다.	7	53.8
4) 흥미있어 하지 않는다.	1	7.6
5) 매우 흥미있어 하지 않는다.	0	0.0
6) 기타	0	0.0
total	13	100.0

조사 결과 감상 수업 시 학생들의 흥미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흥미있어 한다는 응답은 38.4%, 흥미 있어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문항 18). 다음은 감상 수업 시 흥미 있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표 36> 감상 수업을 흥미 있어 하지 않는 이유

분 류	N	frequency (%)
1) 수업 교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0	0.0
2) 정해진 수업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렵다.	1	50.0
3) 수업의 내용이 학생이 이해하기 어렵다.	0	0.0
4) 주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외되고 있다.	1	50.0
5) 기타	0	0.0
total	2	100.0

조사 결과 정해진 수업 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렵다는 의견과 주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3.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지금까지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 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고등학교의 미술 감상 교육 실태를 교과서의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상수업의 비중

미술 수업의 비중은 교과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현 영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서의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감상 영역에서 교과서의 활용이 의외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감상 영역의 지도에 있어서 교과서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질적으로 향상된 교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입증해준다.

나. 감상수업의 내용

감상 수업의 내용으로 수업 시 많이 다루는 영역은 회화 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디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교과서의 분석에서도 회화 도판의 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상 영역의 도판 중 디자인 영역으로 분리되어 소개되고 있는 출판사는 없었다. 감상 작품의 소개 역시 서양미술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동양미술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혀 없는 것은 교사들의 편견에 의한 작품선정 관점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가로 대부분 국내와 서양 모두 1900년대 이후 근-현대 시기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다. 교과서의 활용과 참고자료의 이용

미술 감상 수업의 참고자료는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교사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와 같은 통신 매체가 다양한 지식의 출처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 하지만 교사 의 교구의 개발이나, 기타 시청각 자료의 이용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교과서의 참고도판의 구성에 있어서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도판이 상당수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과서 체제가 출판사별로 큰 특징 없이 일률적인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 또한 교과서 참고도판의 개선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도판의 설명이 수정· 보완되고, 도판의 크기가 명료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라. 감상수업의 지도 방법

감상수업의 지도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미술 교사들은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미술을 활용한 감상 교육을 외부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통상적으로 감상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단지 형식적인 수행평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마. 감상 수업의 기자재 현황과 활용

기자재 보유 현황을 조사 한 결과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보관할 부속 시설이 없다는 의견이 69.2%를 차지하고 있고, 시청각 기자재의 구비 현황 또한 컴퓨터, VTR, TV 이외의 시청각 기자재는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각 기자재는 여러 감각, 특히 시각과 청각에 직접 호소하는 기계적인 교육의 도구이며, 시청각 교육의 가치는 산 경험을 준다. 실제 생활공간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시각적 자극 홍수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실에서는 이런 일상문화의 강도와도 동떨어지고 실생활의 구체적 체험과도 유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40]

이와 같이 교육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미술 감상 교육은 부족한 수업시수로

40) 강동욱,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40.

인하여 형식적인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과 영역의 구성으로 인하여 활용의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그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바람직한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학교 차원의 지지로 미술실의 기자재 확보와 더불어, 미술관과 박물관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미술 감상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통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고등학교 1학년 교과를 대상으로 현행 교육과정 체제의 교과서 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미술 감상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감상 영역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표현활동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과서의 체제는 학교 수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구성으로 활용의 효율성이 낮았다. 학교 현장의 미술 감상 교육 실태는 기자재의 여건과 주 당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학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과 영역과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정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술 감상 교육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 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첫째, 교과서의 체제가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현재의 상황을 재고하지 못한 교과서의 구성으로 활용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정될 교과서의 체제는 쪽수와 도판의 양이 많고 적음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서 소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 7차 교과서의 분석결과 표현 활동 위주의 구성체제가 드러났으며, 각 나라와, 시대, 형식적인 면에서 편중된 구성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과서의 영역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감상 할 수 있도록 편중된 구성을 지양해야 하며, 미술사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또한, 현행 교과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학습자 도판을 작가 도판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게 구성하여 감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시각문화 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영역은 환경, 문화, 생명가치, 영상중심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하여야할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현대미술에 대한 미술사적인 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의 변화에 요구하는 영상매체문화에 대한 관점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첫째, 교육현장의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감상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청각 기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미술 교육은 시각적인 반응에 호소하는 교육이며, 영상 정보화 시대에 민감한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 미술실과 작품을 전시하며 감상 할 수 있는 부족 시설 등의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과 수정· 보완된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의 재량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을 요구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재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구사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문화 교육적 환경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미술문화가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장 수업 내용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41]

셋째,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미술 감상 교육은 정서나 인식의 함양을 넘어 한 시대의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비평함으로써, 영상 정보

41) 이성도 외, 전게서, p.199.

시대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미술 감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점을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환경적인 요구와,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제 7차 교육과정의 모순과 한계를 재정비하여 새롭게 개편된 것이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 지금, 현행 교육 체제의 제도· 환경적인 개선이 없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어도 현행 미술 감상 교육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합되는 교과서 체제의 개발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교육적 연구의 성과가 이루어져 미술 감상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과서 >

고승희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주) 두산, 2003.

김정희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교학연구사, 2003.

노영자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주) 교학사, 2002.

이윤구.『고등학교 미술』. 서울: 삶과 꿈, 2003.

이현표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2.

한윤성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주) 금성출판사, 2002.

홍명섭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주) 천재교육, 2002.

홍선표 외.『고등학교 미술』. 서울: 시공사, 2002.

<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광주: 한솔사, 2008.

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1997.

_____.『교육과정 총론』. 2007.

_____.『미술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2007.

_____.『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서울: 대한교과서, 2007.

< 단행본 >

김삼랑. 『미술교육개론』. 서울: 미진사, 2000.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2006.

김춘일.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사, 1985.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5.

< 학위논문 >

강동욱.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보영. “미술 감상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혜정. “고등학교 미술 감상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미술사 비교 감상 수업을 중 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지영. “고등학교 미술 감상 수업 연구: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윤정. “미술비평교육 신장 방안을 위한 미술 교과서 분석: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정세희. “고등학교 미술 수업에 있어서 교과서의 기능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학술지논문 및 정기 간행물 >

노부자. “미술감상과 교육.” 『조형교육』 제 13집, 한국조형교육학회, 1997.

박동수. “미술감상의 특징과 지도 방법.”『미술교육논총』제3집,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6.

박은덕.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체계 비교 분석.” 『조형교육』 제 21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3.

박휘락. “감상 교재의 분석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 방책: 현행 미술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초등교육연구논총』 제 10집,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1997.

이성도 외.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의 탐색.” 『조형교육』 제 23집, 2004.

이수경. “제 7차 중등미술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연구』제 5권 제 2호, 한국교원대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2.

이은적. “미술비평과 감상교육.”『미술교육연구논총』제 12집,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01.

함수곤. “제 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원대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2.

< 웹 사이트 >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부 록】

< 설 문 지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은미 라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감상수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재직하시는 미술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미술 감상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업무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번거로운 부탁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순수하게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에 참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박은미 올림.

※ 다음 질문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시고.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경우 기타 란에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 감상 수업의 비중

※ (1-2) 7차 교육과정의 미술 교과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이 세 영역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미적체험 ( ) %

표 현 ( ) %

감 상 ( ) %

2. 수업 시 교과서 활용의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미적체험 ( ) %

표 현 ( ) %

감 상 ( ) %

(2). 감상 수업의 내용

3. 미술 감상 수업 시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1) 회화 2) 조각 3) 건축 4)디자인 5) 공예 6) 기타:

4. 감상 작품 소개 시 선생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분은 어느 영역입니까?

1) 한국미술

2) 동양미술

3) 서양미술

4) 세 영역 모두 고르게 소개하고 있다.

5) 기타 :

5. 서양미술사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면 선생님께서 감상 수업 시 작가와 작품소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1) 고대 (기원전~7세기)

2) 중세 (8~13세기)

3) 르네상스 이후 (4~17세기)

4) 신고전주의 이후 (18~19세기)

5) 인상파 이후 (1900~1945)

6) 추상표현주의 이후 (1945 ~현재)

7) 기타 :

6. 한국미술사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면 선생님께서 감상 수업 시 작가와 작품소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1) 선사 (70만년전 ~기원)

2) 삼국시대 (기원전 57~935)

3) 통일신라 (668~1392)

4) 고려시대 (918~1392)

5) 조선시대 (1392~1897)

6) 근대 (1897~1945)

7) 현대 (1945~ 현재)

8) 기타 :

7. 미술 감상 수업 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십니까?

1)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토대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한다.

2) 학생들이 알아야 할 미술 사조나 양식에 맞게 교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다.

3) 교사가 좋아하는 작가를 선정한다.

4)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가를 선정한다.

5) 기타 :

8. 미술감상 수업 시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작가와 작품은 무엇입니까?

	작 가	작 품
국 내		

국 외		

(3). 교과서의 활용과 참고자료의 이용

10. 선생님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미술교과서의 출판사는 무엇입니까?

1) 교학연구사 (김정희 외)

2) 대한교과서 (이현표 외)

3) 교학사 (노영자 외)

4) 삶과꿈 (이윤구 외)

5) 두산 (고승혜 외)

6) 금성출판사 (한윤성 외)

7) 시공사 (홍선표 외)

8) 천재교육 (홍명섭 외)

11. 미술 감상 수업 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1) 슬라이드 또는 사진을 이용한다.

2) 화집이나 전시 도록에 실린 작품을 사용한다.

3)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작품을 사용한다.

4) 인터넷 자료를 사용한다.

5) 기타 :

12. 미술교과서의 감상영역에서 소개된 도판 중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참고도판의 수록을 늘려야 한다.

2) 특정 지역이나 역사에 편중되지 않은 고른 도판의 구성을 보여야 한다.

3)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교과서에 수록된 미술사나 도판영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 감상이 용이하도록 참고도판이 좀 더 크고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5) 전통미술에 관련한 도판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6) 현대미술에 관련한 도판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7) 기타:

(4). 감상 수업의 지도 방법

13. 지역미술을 활용한 감상 수업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 화집이나 기타 매체의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

2) 현장견학을 통해서 감상을 한 후 감상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3) 하지 않는다.

4) 기타 :

14. 수업시간에 제작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감상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1) 작품 평가 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하며 토론한다.

2) 우수한 작품은 교내에 전시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3) 하지 않는다.

4) 기타 :

(5). 감상 수업의 기자재와 활용

15. 미술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1) 미술실 2) 일반교실 3) 기타:

1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며 보관할 전시장과 부속시설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기타 :

17. 감상 수업 시 활용하시는 교구로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멀티미디어 컴퓨터 2) VTR 3) 빔 프로젝트 (PC 및 비디오 호환)
4) 슬라이드 프로젝트 5) OHP 6) 실물 화상기 7) 프로젝션 TV
8) 없음 9) 기타 :

(6). 학생들의 흥미도

18. 미술수업에서 미적체험, 표현 영역과 비교하여서 감상 수업 시 학생들의 흥미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흥미있어한다.
2) 흥미있어한다.
3) 보통이다
4) 흥미있어하지 않는다.
5) 매우 흥미있어하지 않는다.

19. 위의 질문에서 '흥미있어하지 않는다'에 해당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수업교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2) 정해진 수업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렵다.
3) 감상 수업의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
4) 주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외되고 있다.
5) 기타 :

20. 바람직한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	학 번	20058264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박 은 미	한문: 朴 恩 美		영문: Park Eun Mi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84-43번지				
연락처	E-MAIL: artem21@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고등학교 미술 감상 영역에 관한 연구 - 교과서의 분석과 미술수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 art appreciation education at high school - focused on analysis of textbooks and current status of art class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07월 11일

저작자: 박 은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